



암 검진 안내

충무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대상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 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	6개월	간 초음파 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검사 : 양성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폐암	만 54세~만 74세 30갑년 이상 흡연자	2년	저선량 흉부 CT

* 비용부담은 본인부담 10% 해당자만 부담하고, 본인부담없음 해당자는 무료입니다.

* 직장인검진 대상자는 암검진과 1차검진 동시 실시 가능합니다.

충무 천안·아산충무병원 예약 및 문의

천안충무병원 건강검진실 041) 570-7556 / 7557 / 7569
041) 360-1153

아산충무병원 건강검진실 041) 536-6760 ~ 6763

천안충무병원 **검진시간**
평 일 08:30 ~ 16:00
토요일 08:30 ~ 11:00 까지 접수

아산충무병원 **검진시간**
평 일 08:30 ~ 16:00
토요일 08:30 ~ 11:00 까지 접수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YOUNG SEO MEDICAL FOUNDATION

사회복지법인 영서복지재단
YOUNG SEO SOCIAL WELFARE FOUNDATION

최선의 선택, 최적의 의료서비스

1st Choice

충무 마당

Chungmu Hospital Magazine

이달의 명의
천안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정태 과장
아산 소화기내과 김진홍 과장

센터탐방
천안 간호부교육팀
아산 척추내시경센터



**2026
01-02**

총무 마당 2026 01-02



04	신년인사 이사장 권준덕	28	new wave 5 [의학상식] 수술 전후 적정 금식 시간 천안 마취통증의학과 김동수 교수	58	칭찬합시다
06	여는 글 의료원장 권영욱	32	new wave 6 [의학상식] 심혈관질환 예방과 치료 아산 심장내과 장기설 과장	62	마음을 잇다: 우리의 이야기
08	천안·아산총무병원 신규의료진 소개	34	new wave 7 [의학상식] GLP-1 계열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아산 내분비내과 한정희 과장	68	이달의 친절 사원
10	이달의 명의 천안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정태 과장 아산 소화기내과 김진홍 과장	36	센터탐방 천안 간호부교육팀 아산 척추내시경센터	70	외래진료안내
14	Case Report 1 [의학상식] 소아 복통의 이해 아산 소아청소년과 김수천 과장	40	총무뉴스		
16	new wave 1 [의학상식] 취담도 내시경이 매력적?? 천안 소화기내과 정지현 과장	50	재단소식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총무원 영서원 총무노인복지센터		
18	new wave 2 [의학상식] 수면을 돕는 약물들에 대한 몇가지... 천안 정신건강의학과 이정태 교수	56	슈퍼루키 천안 간호부[권예림] 아산 간호부[오은지]		
22	new wave 3 [의학상식] 병리과와 동반진단의 세계 천안 병리과 최창환 과장				
26	new wave 4 [의학상식] 뇌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계절... 천안 직업환경의학센터 이현교 과장				

사랑하는 천안·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고 계신 영서의료재단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걸어온 시간들이 유독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제와 오늘은 똑같은 24시간처럼 보이지만, 어제를 어떻게 기억하고 내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는 곳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공간임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저희 영서의료재단은 이제 익숙한 풍경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세심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병원의 본질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료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최신 의료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공급자의 시선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 혁신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진료 시스템과 서비스 곳곳에 충분히 반영되어 '나를 위한 병원'이라는 따뜻한 경험으로 되돌아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의료 환경 또한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지켜야 할 중심은 명확합니다.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낯은 관행과 매너리즘을 기꺼이 덜어내고, 시민들의 필요를 능동적으로 채워드리는 유연한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담금질하며 정성을 다할 때, 병원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소 누구도 혼자서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거대한 강물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지고, 세상이 감탄하는 결실들도 수많은 도움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 또한 의료진과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내주시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이 하나로 맞닿아야 완성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고 따뜻한 미소로 서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내부에서 흐르는 존중의 문화는 고스란히 환자분들에게 전달되어 치유의 에너지가 됩니다. 병원 안에서의 화합을 넘어 지역 의료기관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천안·아산의 건강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 나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6년 한 해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영서의료재단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참 좋은 병원'으로 깊이 각인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총무마당」을 손에 쥐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병원 곳곳에서 매일같이 치유의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 샘솟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서의료재단 이사장 권준덕

그렇게도 우려했던 2025년 을사년이 지나갔습니다.

년초에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심정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큰 대과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일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26년도에는 2025년도에 못다 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더 나아가 새로운 계획에 도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니다.

신임 이사장님이 2026년도 경영목표를 혁신(innovation), 변화(change), 협력(cooperation)으로 정했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며 변화를 모색하자.

그 이면에는 전 직원의 협력, 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천안, 아산 시민을 위하여 아산총무병원의 의료의 질을 한단계 높여 명실공히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천안총무병원은 심장과 뇌에 특화된 종합 병원으로서 더욱 매진합니다. 노인의료복합단지 는 시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친애하는 천안, 아산 시민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긴 터널 끝에 찾아온 밝은 빛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가득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원장 권영욱

| 신규 의료진 소개

천안충무병원



심장내과
김수중 교수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 의학박사
- 내과 전문의
-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 경희 대학교 의과 대학 졸업
- 경희 대학교 부속병원 인턴 및 내과 레지던트 수료
- 경희 대학교 부속병원 순환기 내과 임상조교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조교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부교수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정교수
- 하버드의대 MGH 심장내과 연수
- 대한 내과학회 정회원
- 대한 심장학회 정회원 및 총무위원
- 미국 심장학회 회원
- 대한 심혈관중재학회 정회원 및 학술위원
- 대한 고혈압학회 정회원 및 논문심사위원
- 한국 심초음파학회 정회원
- 대한 의학회 논문심사위원

아산충무병원



비뇨의학과
홍재엽 과장



여성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 제일병원 비뇨의학과장
-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부교수
- 홍재엽여성비뇨기과의원 원장
- 미래와희망산부인과 과장
- 분당차병원 비뇨의학과 부교수
- 진주제일병원 비뇨의학과장
- 세계비뇨산부인과 아시아대표
- 대한비뇨의학회 경인지회 회장

천안충무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태환 과장



진단혈액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인턴수료
- 건국대학교병원 레지던트수료
-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임상의학석사
- 전 삼광의료재단 전문의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정회원

아산충무병원



정형외과
고반석 과장



회전근개 질환, 오십견, 외상
스포츠 손상,관절경 수술
고관절 골절, 수부외상
인공관절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병원 인턴 수료
- 충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수료
- 충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임상강사 수료
- AO trauma course 수료
- 前 청주 마이크로 병원 진료 원장
- 前 청주 현대 병원 진료 원장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전-충청고관절연구회 정회원
- 대전-충청건관절지회 정회원



이달의 명의

천안충무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정태 과장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3차 종합의료 기관에서 심장 및 혈관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심뇌혈관 전문 병원인 천안충무병원에서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주로 어떤 진료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는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심장 수술 환자와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중점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의 외과적 치료를 위한 성인 심장수술(관상동맥 우회술, 판막 수술, 심장 종양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부전 환자 중 혈액투석도관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투석용 동정맥루 조성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초혈관폐색증, 당뇨발 등 하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환자와 하지정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흉부 질환으로는 흉부 외상(늑골 및 흉골 골절, 혈기흉 등)과 그 외 흉부 질환(기흉, 다한증, 폐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심뇌혈관 전문 병원으로서 심장 수술을 위한 전용 수술실과 최첨단 장비를 구비하여 심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 수술팀 전원이 심장 수술에 집중하여, 심장 수술 후 간호사 1:1 집중 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심장혈관흉부외과 질환을 가진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경우, 진료·검사·판독·시술 및 수술이 당일 가능한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며, 병원 재방문에 대한 불편감을 줄여 환자 만족도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자긍심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생명이 있어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생명과 사투를 벌이던 환자가 치료에 반응하여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의사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천안충무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천안충무병원의 의료진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안 지역에서 최신 의료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발전해 왔고, 현재는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심장 수술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안충무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의 환자께 집중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041-360-1169



이달의 명의

아산충무병원 소화기내과 김진홍 과장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조교수로 근무한 후 아주대학교병원에서 30년간 교수로 봉직하면서 소화기학회 회장, 췌장담도학회 회장, 스텐트연구학회 회장, 초음파내시경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2024년 3월부터 아산충무병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홍입니다.

소화기내과에서 주로 어떤 진료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위장관 및 췌장담도 질환을 외과적 개복술이나 절제술을 대신하여 내시경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치료내시경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대장의 용종절제술, 위장관 출혈의 지혈술은 물론이고, 위장관 협착에 대한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담석의 내시경적 제거술, 또는 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인한 황달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 등과 같은 내시경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특히 아직 대학병원 급에서도 잘 시행하고 있지 않는 췌장담도 또는 위장관 수술 후 황달 또는 담석이 생긴 환자에서 풍선 소장내시경을 이용한 내시경적 치료술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고 가장 많이 시행하였습니다.

아산충무병원 소화기내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본 소화기내과는 상급 대학병원 급의 모든 최신 내시경 기기를 다 갖추고 있으며, 위장관, 간, 췌장담도 분야에 특화된 대학병원 교수 출신을 포함한 6명의 세부전문의가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소화기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 후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하여 치료받기까지 최소 3~4번은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본 병원에서는 대학병원 급 시설과 대학교수 출신의 전문 의료진이 당일 진료, CT, MRI, 내시경을 포함한 당일 검사, 당일 결과 확인, 당일 약물치료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의사로서 자긍심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현존하는 검사법이나 시술법이 한계가 있을 때 새로운 시술을 고안하거나 또는 다른 의사들이 어려워서 못하는 시술을 성공하여 환자가 좋아졌을 때에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평소 환자를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은 아산충무병원의 모토와 같은 '환자를 내 가족처럼'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 어떤 검사를 먼저 할 것인지, 어떤 치료를 택할 것인지는 환자가 내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아산충무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산충무병원은 각 임상과에 경험이 풍부한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의료기기나 장비도 대학병원 급으로 거의 다 갖추고 있으며, 충분한 시설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의 진단 및 치료법을 도입하여 환자 여러분들이 믿고 안심하고 오셔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 Report 1

소아 복통의 이해

아산총무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수천 과장



아산총무병원 달빛어린이병원에 내원하는 주요 질병으로는 복통, 설사, 변비,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소아 복통은 단순한 소화 불량부터 응급 상황을 요하는 중증 질환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소아 복통에 대한 올바른 의학 상식을 전달하고, 더불어 본원에서 경험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복통 발생 시 소아 보호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돕고자 합니다.

1. 소아 복통의 원인

소아 복통은 연령에 따라 주요 원인이 달라지며 음식, 스트레스, 소화기 문제,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0-1세	2-5세	6-11세	12-18세
위장관염	위장관염	위장관염	위장관염
영아산통	급성충수염	급성충수염	급성충수염
변비	변비	변비	변비
요로감염	요로감염	요로감염	월경곤란
장중첩증	장중첩증	기능성 복통	배란통
장의 염전	장의 염전	폐렴	골반강내염증
감돈성 탈장	외상	외상	절박유산
선천성 거대결장	인후염	인후염	자궁외 임신

*연령별 급성 복통의 원인

특히 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주요 복통 원인 네 가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① 위장관염(Gastroenteritis)

노로 바이러스나 로타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감염, 또는 살모넬라균 등 세균성 감염, 오염된 물 섭취로 인한 장출혈성/기생충성 감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② 급성 충수염(Acute Appendicitis)

충수 돌기가 막히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이 증식하여 점막 손상, 심하면 괴사 및 천공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변비(Constipation)

원발성 변비 외에도 전신 질환, 신경 이상, 기질적인 병변 등에 의한 이차적 변비로 인해 복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④ 장중첩증(Intussusception)

장의 일부가 그 다음 장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발생 후 24시간 이상 경과하면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장이 괴사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2. 복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모든 복통은 소화기 문제일 것이다” 혹은 “진통제나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통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통제나 소화제로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 보다는 복통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진단은 위험할 수 있으니, 복통이 심하거나 다른 증상과 동반되면 주저 말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위험 신호

아래와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 지체 없이 응급실이나 달빛어린이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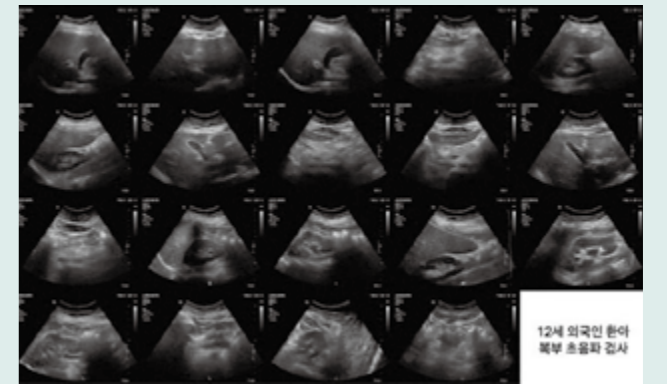
- ① 통증의 강도나 횟수가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일 때
- ② 복통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며 활동이 급격히 떨어질 때
- ③ 최근 식욕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 감소가 있을 때
- ④ 밤에 자다가 깨어나 복통을 느낄 때
- ⑤ 이전에 없던 구토나 설사가 동반될 때
- ⑥ 자주 미열이 나면서 복통을 호소할 때
- ⑦ 배의 특정 부위(배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위)가 항상 아플 때

4. 본원의 최근 사례: 수신증 진단

본원에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수신증을 진단한 사례입니다. 수신증은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관 등에 장애물이 생겨 소변이 신장 내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고, 이로 인해 신장이 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이는 신장 및 요로계의 문제로 복통이나 옆구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방치 시 신장 기능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12세 외국인 환자였습니다. 심한 구토나 전형적인 복통 증상은 없었으나, 평소보다 식사를 잘 먹지 못하였습니다. 열은 없었으며 배꼽 아래 왼쪽 부분에 간헐적 불편감을 호소하여 내원했습니다. 본원에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SONO)를 통해 수신증을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1세 남아로,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CT 촬영을 진행한 결과 수신증을 확인했습니다. 본원은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에도 불구하고 영상 진단을 통해 복통의 숨겨진 원인인 요로계 질환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소아 복통은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위에 안내드린 위험 신호를 숙지하시어 자가 진단 보다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소아의 복통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일차적인 진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전문적인 진찰을 통해 다양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췌담도 내시경이 매력적??

천안충무병원 소화기내과 정지현 과장



" 왜 이렇게 안들어 가나? 힘들어 죽겠네!! "
 " 또 췌관으로 삽입되네. 췌장염 심하게 오면 어떡하지."
 " 안되겠다. 니들 나이프(needle knife)가져와요."
 " 바늘을 반만 내세요. 너무 깊어요."
 " 조영제가 왜 옆으로 새지? 구멍난 듯 하네. 아~!!"

위 대화는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줄여서 ERCP, 우리말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간호사와 주고받는 대화 내용입니다. ERCP는 줄여서 췌담도 내시경이라고도 환자에게 설명합니다. 주로 담관, 췌관에 담석이나 종양에 의해 담즙이나 췌장액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이 시술로 진단 및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췌담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인 담관결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진 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은 주로 담낭에 위치하고 있는데, 담낭결석은 저수지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물이 와서 눈·경지에 물을 공급할 때 바닥에 자갈이 있어도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수지 바닥에 있던 자

갈이 우연히 농수로로 물과 함께 이동하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수확량이 줄고, 심하면 저수지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담낭결석은 임상 양상에 따라 지켜볼 수 있지만, 담관에 있는 담석은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담관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는 췌담도 내시경은 쉽지 않습니다.

췌담도 내시경은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의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률이 약 90% 정도입니다. 즉, 10명 중 1명은 내시경 시술이 실패할 수도 있는데, 보호자와 환자분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고 위·대장 내시경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위·대장 내시경이 무조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췌담도 내시경은 렌즈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삽입한 후 초보자는 전후좌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담즙 배출구인 십이지장에 위치한 유두부가 몇 mm 정도밖에 안 되고, 사람마다 위치가 달라 선택적으로 삽관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담관으로 선택적 삽관만 잘 된다면 췌담도 내시경은 2/3 이상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주 크고 딱 긴 담석만 아니라면 다양한 바스켓과 풍선 같은

기구로 담관결석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삽관이 잘 안 된다면 담즙 배출구 입구 위쪽을 전기칼(needle knife)로 길 모양을 상상하고 작은 구멍을 뚫어 삽관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 대화처럼 천공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0.3%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발생하면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가, 수술을 할 것인가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하고, 의사와 보호자는 꺾려온 상태로 일주일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시술 전 아무리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일반적인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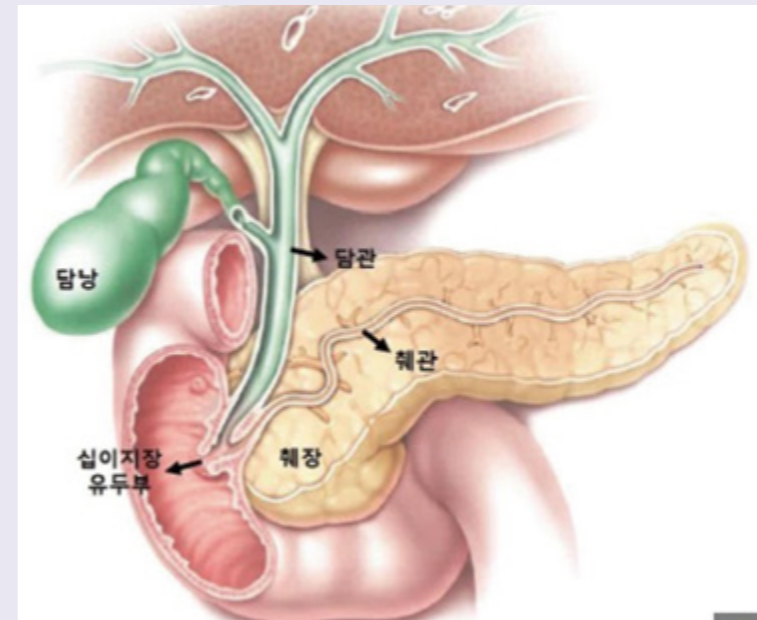
사실 췌담도 내시경은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시술 분야입니다. 우선 무거운 납복을 입어야 하고, 방사선 노출(?)을 감수해야 하며, 시술의 난이도도 높고 실패율도 있습니다. 만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다면 소송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즘 40대 이하 췌담도 내시경 의사를 찾기가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 것

인가, 그냥 일반 내시경만 하고 환자만 잘 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 또한 존재합니다. 많은 내과 질환은 사실상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조절하는 병입니다. 천식, 당뇨, 고혈압, 만성 신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은 나빠지지 않게 잘 조절하여 편안한 삶을 이어가게 해드리는 일이 보람이 크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췌담도 내시경은 다릅니다. 산통보다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던 환자분이 시술 후 씻은 듯이 좋아져 다음날 “배고프니 밥 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아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로서의 자부심도 크게 느껴지고 힘도 많이 납니다.

이런 글을 쓰는 와중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님! ○○병원 담관결석 복통 환자 전원 왔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응급실을 달려갑니다.



담도계 해부학적 사진

수면을 돕는 약물들에 대한 몇가지 질문들

천안충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태 교수



문1: 미국에 살고 있는 조카가 멜라토닌이라는 약을 보내 왔는데 어떤 약인가요?

멜라토닌(MELATONIN)은 뇌속에 있는 작은 부위로 솔방울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송과선이라고 이름 붙여진 기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면호르몬으로, 어두우면 분비량이 증가하여 졸음을 유도하는데, 빛이 있으면 분비량은 감소합니다.

외부에서 투여하면 대체로 한두시간 후에 졸음이 유도됩니다. 전과 달리 쉽게 잠을 못이루고 늦게 잠이 들어서 늦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소위 수면위상의 지연 상태에서 투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자던 시간보다 한두시간 전에 투여하면 그 시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수면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로 인해서 수면 리듬이 깨졌거나, 시차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면제와는 좀 다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뇌에서 자연히 분비되고 또 몸의 생리 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여하면 뇌에서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장기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많이 쬐고, 낮동안 꾸준히 밝은 햇빛 속에 자신을 노출시키며,

저녁에서 밤으로 들어서면서 조명을 줄이고 주위를 어둡게 함으로써 사이클을 회복하고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충분히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ELATONIN과 비슷한 약제로 아고틴(AGOMELATINE)이라는 약이 있는데, 수면에도 일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불면증 보다는 우울증 약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항우울제와 달리 세로토닌 농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문2: 요즘 새로 소개된 수면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약들인지요? 또 이 약들은 남용이나 습관성의 위험이 없나요?

예전부터 사용되던 수면제들은 대체로 벤조계(BENZODIAZEPINES) 약물인데, 여기 속하는 약들은 오용이나 금단, 내성의 위험이 크고 신경의 안정이나 근육이완, 항경련효과가 있는데 비해서 이런 위험이 적은 비벤조계(NON-BENZODIAZEPINES) 수면제들이 졸음을 상징하는 알파벳 Z를 써서 Z-DRUG라는 별명으로 소개되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졸피렘(ZOLPIDEM, 스틸녹스-STILNOX)인데 수면

유도시간이 30분정도이고 반감기는 2-2.5시간으로 짧지만 작용시간은 6-8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낮동안의 졸림이나 졸음운전 등의 위험성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서너시간이나 너댓시간 후에 잠을 깨는 등 수면지속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너무 일찍 깨어나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 작용시간을 한두시간 더 연장시킨 스틸녹스 서방형(STILNOX CR)이 개발되었습니다.

조스(ZOS, 에스조피클론-ESZOPICLON)도 Z-DRUG의 일종인데, 수면유도시간이 15~30분으로 짧은 반면, 작용시간은 7-8시간으로 길어서 중간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작용시간 4시간 정도인 ZOLPIDEM과 비교하여 말기 불면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면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 아침에 졸림이 심할 수 있고, 복용 다음날 아침 입이 무척 쓴 단점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잘레딕(ZALEPLON)이라는 약은 졸피렘, 조스와 함께 벤조계 수면제가 아닌 소위 Z-DRUG중에서 가장 최근에 승인된 약입니다. 작용시간이 20~30분으로 매우 빨라서 자기 직전에 복용하며, 반감기도 1시간으로 짧아서 자주 깨는 중간 불면증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초기 불면증에 주로 처방됩니다.

장점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약들도 졸피렘에서 경험되는 것처럼 남용이나 습관성의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복용 보다는 꼭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3: 그렇다면 벤조계 수면제 (BENZODIAZEPINES)는 모두 습관성이 있나요?

벤조계 수면제는 오용, 남용, 습관성 혹은 내성의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약물입니다. 벤조계든 비벤조계든, 이 약들을 사용하다 보면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르게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일밤 복용하는 지속 복용 보다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간헐적, 필요 시 복용이 추천됩니다. 왜냐하면 내성이 발생하면 전과 같은 용량으로 동일한 수면효과를 얻을 수 없고,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하면 불면이 오히려 심해지거나 심지어는 불안이나 우울이 나타나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금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벤조계 수면제를 위시한 신경안정제들은, 작용시간이 길 경우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어서 걸어가면서 잔다든지(수면 보행), 운전중에 너무 졸립다든지(수면 운전), 특이하게 밤중에 잠결에 냉장



NEW WAVE 2

고를 열고 음식을 꺼내 먹는다든지, 자신도 모르게 주먹으로 친다든지 발길질을 한다든지 지인에게 전화를 걸고는 막상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예기치 않은 복합수면행동의 위험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작용시간이 짧은 수면제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따라서는 작용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야간수면 중 자신도 모르게 주먹으로 친다든지 발길질을 한다든지 행동장애가 발생하여 자신이 다치거나 동침자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벤조계 약물의 경우 건망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운동능력, 운전능력이 저하되거나 기계조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Z DRUGS에서도 지나친 안정, 근육이완 등이 동반될 수 있고 특히 노인이나 허약한 환자의 경우 벤조계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뿐만 아니라 Z-DRUG를 사용할 경우도 섬망이나 혼돈을 야기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호흡기 환자의 경우 호흡을 억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문4: 벤조계 수면제에는 어떤 약들이 있나요?

벤조계 수면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약인 졸민과 루나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봅니다.

(1) 루나팜(LUNAPAM)

달마돔이라고 불리는 플루라제팜(FLURAZEPAM)은 렘(REM) 수면에 작용하여 꿈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수면유도시간이 20~45분으로 짧으나 반감기가 75~90시간으로 길다. 따라서 낮동안 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가돈이라는 상품명을 가지고 있는 니트라제팜(NITRAZEPAM)은 잠을 깊게 해 준다고 합니다. 핏속에 최고농도에 도달하는 시간(PEAK TIME)이 30분에서 5시간 정도이고 반감기는 15시간에서 48시간 정도로 길다.

달마돔의 꿈을 줄여주는 기능과 모가돈의 잠을 깊게 해 주는 기능을 합쳤다는 약이 루나팜(FLUNITRAZEPAM)입니다. 수면유도시간은 20~30분이며 최고농도는 1-2시간내에 도달하고 지속시간은 약 8시간 정도입니다. 반감기는 20-30시간으로 길어서 주간 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졸민(ZOLMIN. TRIAZOLAM, HALCION)

졸민은 다른 벤조계 약제들에 비해서 수면유도시간이 15~30분으로 짧고 반감기가 2.6시간으로 작용시간도 6-7시간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주간 졸림 등의 부작용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3) 다른 약들

리보트릴(CLONAZEPAM, RIVOTRIL)은 항경련효과가 강하고 몽유병, 심한 잠꼬대 등 수면행동장애 등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다만 수면제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디아제팜(DIAZEPAM), 아티반(ATIVAN)이나 자나팜(ALPRAZOLAM, ZANAPAM)은 졸리운 작용은 있으나 수면제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BROMAZEPAM, DEPAS 등의 벤조계 신경안정제들도 수면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벤조계든, Z-DRUG스든 절대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습관성의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또 여러 형태의 사고의 위험성이나 건망증의 유발, 운동이나 운전능력의 저하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5: 벤조, 비벤조계 수면제 외에 습관성이나 내성의 위험이 적거나 없는 다른 약들은 없나요? 이참에 수면제로 사용되는 다른 약들도 알려주세요.

(1) 삼환계 항우울제

에트라빌(ETRAVIL, AMITRIPTYLINE) 혹은 에나폰(ENAPON)이라는 전통적인 삼환계 항우울제는 졸리게 하는 부작용 때문에 불면증에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반감기가 15시간이나 되어서 낮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이미푸라민이라는 약도 에트라빌과 유사하지만 이 약은 독특하게도 야뇨증에 효과가 있고, 선택적 세로토닌차단제(SSRI)라는 새로운 항우울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공황장애 환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불면증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나 역시 반감기가 길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사일레노(SILENOR)라는 약은 원래는 삼환계 항우울제 독세핀(DOXEPIN)이라는 약인데, 우울증에는 100~200MG을 투여해야 항우울효과가 나오는데, 소량을 쓰면 항히스타민 효과로 수면을 유도하고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경안정제가 아니기 때문에 습관성도 없고, 따라서 의존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용후 졸리움은 약 1시간 후에 나타나고 지속시간은 6-8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낮동안의 졸리움도 적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벤조, 비벤조계 수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다른 항우울제

트리티코(TRITTICO, TRAZODONE)는 삼환계 항우울제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약으로, 항우울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200~400MG이상 복용해야 하는데, 25~100MG 정도의 적은 양으로는 수면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우울증보다는 불면증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면을 유도하는데 한두시간 정도 필요하고, 수면지속시간은 4~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아침에 기상할 때 급히 서둘러 어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구조를 가진 멀타핀(MIRTAZAPINE)도 수면을 도와주어서 수면보조제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농도에 도달하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취침 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감기가 20~40시간으로 길어서 낮에 졸리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3) 항정신병약물

항정신병약물들은 수면을 위해서 여러가지 약들이 시도되었지만 너무 독하거나 지나치게 진정이 되거나 혹은 몸이 굳는 부작용이 있어서 흔하게 사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쿠에타핀(QUETAPIN)이라는 약이 비교적 순하고 부작용도 적은 반면 졸음이 비교적 빨리 오고 작용시간도 적당하여 다음날 낮까지 졸리는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은 농도에 도달하기 까지 한시간 반정도 걸리니까 자려는 시간 보다 한두시간 전에 복용하고 반감기는 6시간으로 그리 짧거나 길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1) 벤조계 수면제나 비벤조계 Z-DRUGS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2) 수면제가 아닌 신경안정제는 수면을 위해서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3) 몽유병 등 수면행동장애나 심한 잠꼬대에는 벤조계 신경안정제인 리보트릴이 효과가 있습니다, 4) 습관성이나 의존성이 없는 트리티코나 쿠에타핀은 수면의 유도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면보조제입니다, 5) 사일레노는 의존성이 없는 수면제로 적절합니다.

다소 전문적인 영역이고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약에 대해서 알고 먹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약에 대해서 다소 장황하게 소개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치의 선생님을 통하거나 약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1) 무엇보다 평소 수면사이클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기상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2) 아침 기상후부터 낮동안 햇빛을 잘 이용하도록 하고, 3)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암 치료의 숨겨진 핵심 파트너, 병리과와 동반진단의 세계



천안충무병원 병리과 최창환 과장

병리과는 환자의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실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리과는 많은 환자에게 ‘보이지 않는 진료과’처럼 느껴집니다.

“병리과 의사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병리과는 환자 치료의 시작점이자, 여러 진료과가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거쳐 가는 진단의 중심축입니다.

병리과 의사는 환자의 조직이나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며, 암인지 아닌지, 어떤 종류인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다양한 검사 중에서도 진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의사입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는 항암 치료 여부, 약제 선택, 수술 가능성, 예후 예측까지 모두 아우르며 치료의 길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최근 병리과의 역할은 면역항암치료제와 표적항암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는 맞춤형 정밀의료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동반진단 (Companion Diagnostics)’ 기술입니다.



왜 동반진단이 중요한가 - ‘약의 짝’을 찾아주는 진단 기술

과거에는 암 환자라면 누구에게나 비슷한 항암제를 투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 치료는 더 이상 ‘모두에게 똑같은 약을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암세포는 환자마다 유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경우 특정 표적치료제나 면역치료제가 훨씬 잘 듣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동반진단이 중요한 이유가 생깁니다.

동반진단 = 환자에게 효과적인 약이 있는지 찾아주는 검사

예를 들어 같은 폐암이라도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에 따라 효과적인 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맞지 않는 치료를 피하고, 가장 효과가 기대되는 약을 정확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반진단은 바로 이러한 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주며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은 어떻게 치료 방향을 결정할까?

많은 동반진단 검사 중에서도 가장 널리 쓰이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면역조직화학염색’입니다. 이 검사법은 암세포가 특정 유전자 변이에 따라 발현된 단백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로, 병리과가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PD-L1, ALK, HER2는 현재 국내외에서 암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꼭 필요한 대표적인 동반진단 검사입니다.

1) PD-L1 검사 — 면역항암제 사용 결정의 핵심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암을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인데, 그 효과는 환자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비소세포성폐암, 식도편평세포암, 두경부편평세포암, 삼중음서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KEYTRUA®와 OPDIVO®라는 면역항암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PD-L1이라는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고 있을 때 이들 면역항암제가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리과에서는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암세포에서 PD-L1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현미경 슬라이드 위에서 직접 확인하고, TPS(종양세포 양성률), CPS(종합양성세포수) 등을 산출하여 임상 의사가 면역항암제를 사용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PD-L1 검사가 없다면 면역항암제를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투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효과를 볼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PD-L1 면역조직화학염색은 면역항암치료의 필수적인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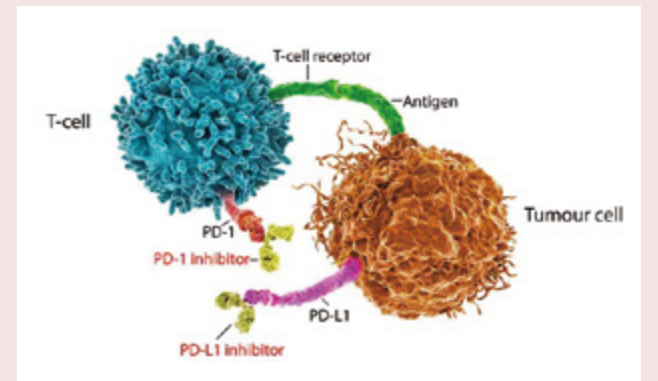


그림1. PD-L1을 발현하는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모습(출처 : <https://education.mims.com/sg/course/495>)



2) ALK 검사 — 폐암 표적치료의 정교한 선별 도구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일부는 ALK 유전자 재배열이라는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특정 표적치료제(예: 알렉티닙, 크리조티닙, 로라티닙)에 매우 잘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변이는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조직을 이용해 ALK 단백질이 발현되는지를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리과에서 ALK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임상외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표적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ALK 양성 폐암은 표적치료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환자의 예후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3) HER2 검사 — 유방암·위암 치료에 필수적인 표지자

HER2는 유방암과 위암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치료에 직접 연결되는 단백질입니다. HER2 양성암은 트라스투주맙, 퍼투주맙과 같은 표적치료제에 뛰어난 반응을 보이기에, HER2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해 HER2 발현 정도를 0, 1+, 2+, 3+로 평가하는 것은 암 치료의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HER2 3+로 평가되는 경우 표적치료제 반응률이 높아 즉시 치료법에 반영하게 되고, IHC 결과가 2+로 애매할 경우에는 FISH 검사를 추가하여 발현여부를 정확하게 재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암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병리과의 보고서 한 줄이 치료의 방향을 바꾼다

병리과에서 PD-L1, ALK, HER2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은 단순히 ‘염색이 됐다/안됐다’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병리 전문의는

- 염색의 강도
- 위치
- 세포 형태
- 배경 조직의 상태
- 기술적인 오류 여부까지

매우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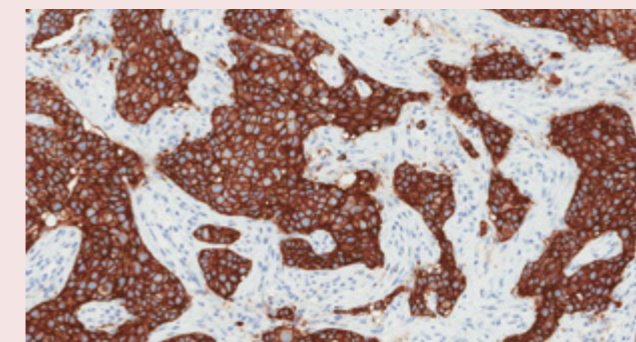


그림2. HER2 3+ 면역조직화학염색 사진(출처 : <https://www.mypathologyreport.ca/pathology-dictionary/her2/>)

이 정교한 과정이 있어야만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시기에 맞게 받을 수 있으며, 임상외사는 병리 결과를 기반으로 치료 설계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리과는 환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지만, 환자의 세포와 조직을 깊이 들여다보며 환자 치료의 핵심 순간마다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가 더 복잡하고 정교해질수록, 앞으로도 병리과는 환자 치료의 든든한 동반자로 그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뇌심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계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천안충무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현교 과장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큰 만큼 혈관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쉬운데, 여기에 활동량 감소와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뇌심혈관질환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자나 교대근무자처럼 생체리듬이 흔들리는 직군에서는 이러한 계절적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휴식하는 패턴은 자율신경과 호르몬 조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겨울철에는 몸의 균형이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본 지표를 한 번 점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은 외부 자극에 민감해 추위, 짠 음식,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쉽게 상승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실외 온도차가 커 혈압 변동 폭이 더욱 커지는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혈관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야간근무자들은 교대에 따른 수면 부족과 교감신경 항진으로 혈압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상 직후와 근무 전후에 혈압을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압은 한 번의 측정보다는 일정 기간의 흐름을 보는 것이 의미 있으므로, 집에서 기록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혈당 관리는 '인슐린이 과로하지 않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져 인슐린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식을 완전히 끊기보다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교체하는 방식이 더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근무자의 경우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식사 시간과 야식 섭취가 잦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근무 시간대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식사하고, 혈당을 급격히 자극하는 식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은 생활습관만으로 조절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LDL, HDL, 중성지방 등의 지표는 꾸준한 운동과 저지방 식이를 하더라도 쉽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여성 호르몬 감소 등 내부적인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대근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중성지방 상승과 비만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어, 평소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LDL이 높은 경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약물치료가 혈

관 보호에 가장 근거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진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겨울은 오히려 건강검진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증상이 없을 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은 이러한 지표가 변하기 쉬운 계절이므로 자신의 건강 수준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라면 주간근무자보다 조기에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은 완치보다는 '조절'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검진은 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겨울철 혈관건강은 작은 생활습관 변화와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흡연을 줄이고,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순서를 조절하며, 꾸준한 저강도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더한다면 훨씬 안전하고 여유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전후 적정 금식 시간

천안충무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동수 교수



전신마취와 수술 시간이 확정되어 있는 환자에게 아무 것도 먹지 말고 대기하도록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 마셨다거나 또는 허기가 저서 바나나 반 개를 먹었다는 소리를 수술 시간이 임박해서 환자로부터 듣게 된 병동 간호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로 다급하게 묻는 목소리를 마취과 의사나 수술실 간호사들은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수술 후 환자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먹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전화도 종종 받습니다.



수술 전에 금식(preoperative fasting)이 안 지켜지면 수술이 지연되게 되므로 담당 간호사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마취과에서는 어떤 음료나 음식을 몇 시에 얼마만큼 섭취했는지 물어보고 또 수술이 정규 수술인지 아니면 응급 수술인지 그리고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또는 국소마취 등 어떤 마취가 예정되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시간도 수술 및 마취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상황을 파악하여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 전 금식’은 마취 및 수술 주기 중에 구역 및 구토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고 위(stomach) 내용물로 인한 기도 폐쇄나 저산소증을 예방하며 수술 중 위 팽창 및 위 손상 방지 등을 위해서 작성된 중요 안전 지침으로서 미국마취과 학회를 비롯해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유럽 마취과학회 및

중환자의학회 등 주요 마취과학회에서 음식물의 섭취 유형에 따라 최소 금식 시간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환자의 연령(소아, 성인), 음식 종류 그리고 마취 종류(전신마취, 부위마취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마취과학회가 권고하는 소아 및 성인의 수술 전 최소 금식 시간과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의 수술 전 최소 금식 시간과 예시

- 투명한 액체(clear fluids): 물, 보리차, 이온음료 - 2시간
- 모유(breast milk): 모유만 해당(혼합유는 해당 안 됨) - 4시간
- 분유(formula milk): 분유, 우유, 이유식 등 단백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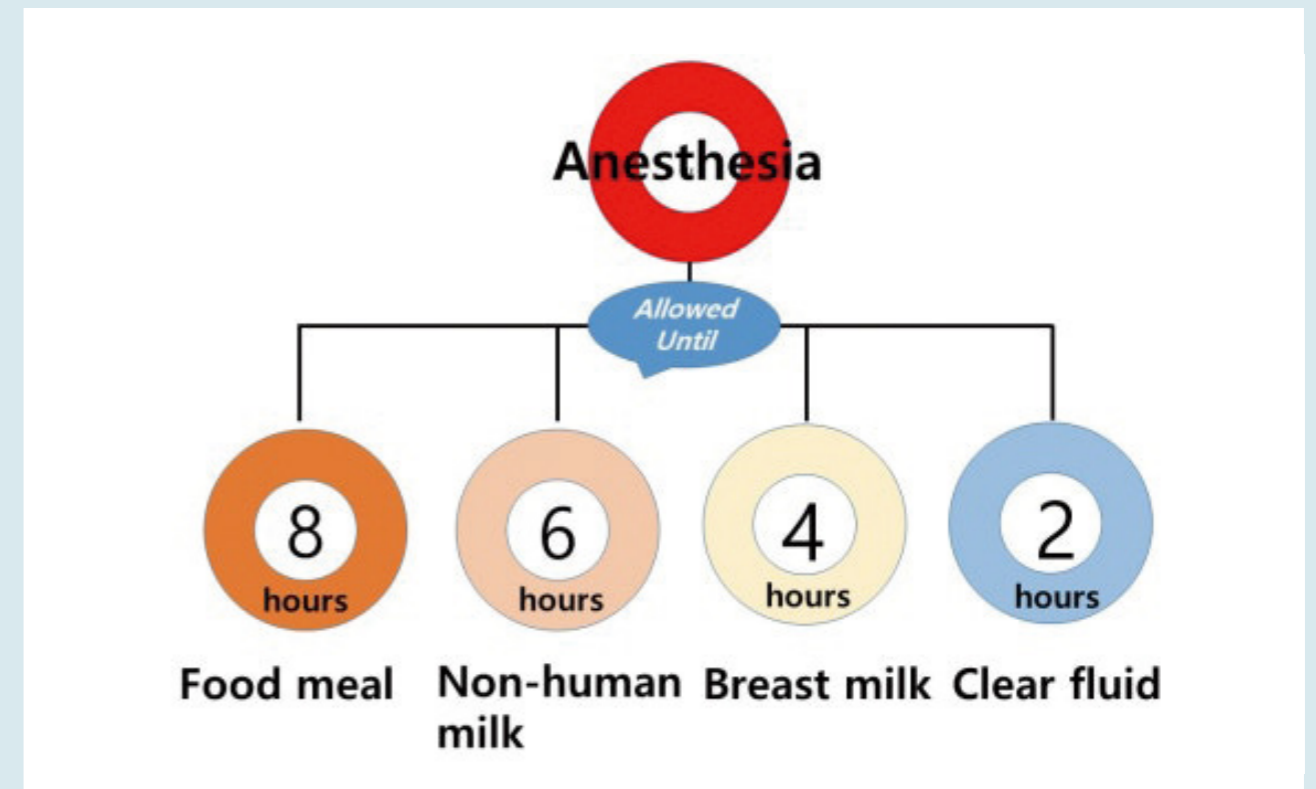
- 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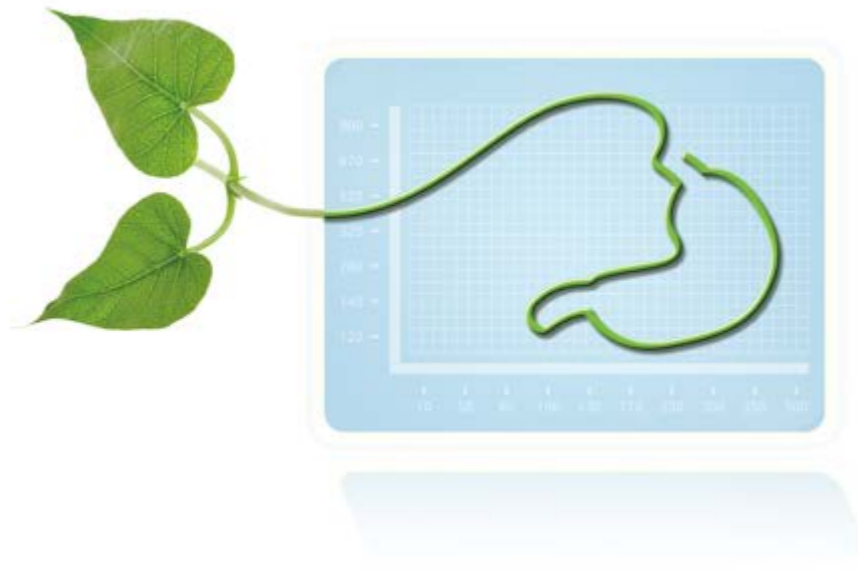
- 고형식/기름진 음식 - 밥, 빵, 과일, 간식 등 모든 일반 음식 - 8시간 이상

[예시]

오전 8시 수술이라면

- 영아(1세 미만): 새벽 6시까지 맑은 물, 설탕물 5 ml/kg 섭취 가능
- 영아: 새벽 4시까지 모유 5 ml/kg(6 kg 아기 - 30-50 ml) 섭취 가능
- 영아/소아: 새벽 2시까지 분유 5-7 ml/kg(보통 평소 수량의 1/2 정도) 섭취 가능
- 소아(1세~청소년): 새벽 6시까지 맑은 물, 보리차 2-4 ml/kg(보통 100-200 ml 정도) 섭취 가능
- 전날 자정 이후에는 고형식 섭취 금지





성인의 수술 전 최소 금식 시간과 예시

- 투명한 액체: 물, 보리차, 이온음료 - 2시간
- 고형식/우유, 지방식: 밥, 빵, 우유(펄프 포함) 등 - 8시간 이상

[예시]

오전 8시 수술이라면

- 새벽 6시까지 맑은 물, 보리차, 이온음료 150-200 ml(종이컵 1개 이내) 천천히 섭취 가능
- 자정(0시) 이후 음식, 우유 섭취 금지

마취 깊이에 따라 의식, 기도 반사 그리고 흡인의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취 종류에 따른 금식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신마취의 경우에는 의식 및 기도 반사 소실 그리고 흡인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고형식은 8시간 전부터 금식을 하고 투명한 액체 종류는 2시간 전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척추마취나 경막외마취는 의식 및 기도 반사 소실이 없고 흡인의 위험성도 거의 없으나 상황에 따라서 전신마취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신마취 수준의 금식 기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 시에 자주 시행하는 수면/진정마취의 경우 깊은 진정으로 의식이 소실되고 기도 반사도 약해져서 흡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 수준의 금식 기준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소마취의 경우에는 의식이나 기도 반사가 잘 유지되고 흡인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금식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서 2시간 전까지 투명한 액체의 섭취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노인, 심혈관질환자는 탈수 및 저혈압 예방을 위해서 필요시 투명한 액체를 일정 시간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당뇨 환자의 경우 금식 중 저혈당 예방을 위해 포도당 용액을 함께 주입하기도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장시간 금식으로 탈수와 저혈당이 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술 2시간 전까지 소량의 투명한 액체를 보충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인 위험성이 큰 비만 환자, 위식도역류가 있는 환자 그리고 임신부는 위 배출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량만 허용하거나 완전 금식하도록 권고하고 껌, 사탕, 담배도 위산 분비를 자극하므로 금식 시간 중에는 피해야 하며 정기 복용약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복용 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수술 전 적정 금식 시간이 지침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특히 소아들이 수술 전에 투명한 액체를 섭취하지 않은 시간이 지침에서 권고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마취과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70,000명 이상의 소아들의 수술 전 금식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아(영유아 약 80% 포함)들은 지침에서 권고하는 시간보다 최소 2배 이상 수술 전에 투명한 액체를 섭취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즉 모든 소아들이 투명한 액체를 섭취하지 않은 시간의 중간값은 2016년 10.9시간에서 2024년 8.7시간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그러나 유아의 경우 2016년 중간값 6.7시간, 2024년 중간값 6.3시간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없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만 유아의 투명한 액체 금식 시간의 중간값은 권고치보다 3배 길었고 모든 소아의 경우 4배 더 길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금식 권고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소아들이 투명한 액체를 섭취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부모와 의료진이 장시간 금식하는 구식 관행(예: 자정 이후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음)을 따른 결과일 수 있고 '미국에서 ASA 금식 지침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이 흔하다는 우리의 가설을 확인시켜주었다'고 연구자들이 밝혔듯이 장시간 금식이 합병증을 증가시키고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소아에게는 가능한 한 수술 2시간 전까지 투명한 액체의 섭취를 허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ASA 금식 지침을 등한시했을 수도 있다고 연구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 및 병실로 옮겨온 환자들이 장시간 금식 그리고 마취 전 투여한 부교감신경 억제제의 영향으로 입 안이 마르고 목이 말라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수술 후 언제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는 수술 부위와 마취 종류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형외과나 비뇨기과 수술처럼 복부·위장관 수술이 아닌 경우 전신마취 후 2-4시간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고 구역 및 구토가 없으며 침을 삼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물이나 보리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실 수 있고 이후 물 섭취에 문제가 없고 복부 팽만감이 없으면 6-8시간 후에 미음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마취 후 복강경을 이용하여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을 한 경우에는 약 6시간 후에 물 섭취가 가능하며 개복수술을 한 경우에는 가스 배출로 장 운동의 회복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1-2일 후 미음 같은 유동식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요법으로 내시경검사를 한 경우에도 의식과 삼킴반사가 돌아오고 1-2시간 후부터 물이나 보리차를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해보면 4시간 이상 투명한 액체를 마시지 않고 장시간 금식하면 갈증, 불안, 통증,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불편할 수 있고 특히 소아들은 탈수와 칼로리 손실에 취약하여 스트레스 가중으로 수술 후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취과 및 수술팀 외의 모든 원내 구성원들과도 수술 전후 금식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일관된 메시지와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심혈관질환 예방과 치료

아산총무병원 심장내과 장기설 과장



1. 심혈관질환이란?

심장 혈관계에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로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포함하며 심부전의 주원인이 되는 질환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및 생활 양식의 변화로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이미 악성 종양(암)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그 외에도 당뇨병이 중요하며 결국 이들 질환에 대한 관리가 질환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연, 활발한 신체활동, 식이 조절 등의 건강 행태의 개선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기도 하며, 혈압 관리, 당뇨병 및 고지질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심혈관질환의 발생과 진행,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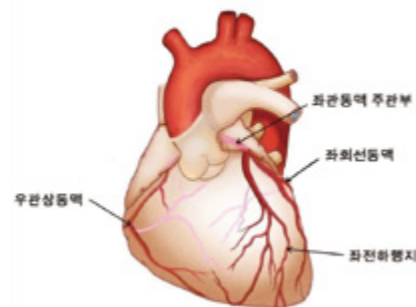
2.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병은 관상동맥(심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경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동맥경화는 쉽게 이해하자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침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혈관 노화현상이지만 고지질혈증, 고혈압 등이 있으면 진행이 촉진되고 혈관 내경이 급속도로 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암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면 비례하여 심장병 발생 및 사망률이 증가하므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액 내 지질 수치를 정상 수치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저밀도 지단백(LDL cholesterol)이 높을수록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률은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이를 감소시키는 것이 치료 및 예방의 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및 가족력 등은 교정이 불가능한 위험 인자이므로 고지질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 비만, 신체활동 부족 등의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를 개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심장질환의 증상

① 협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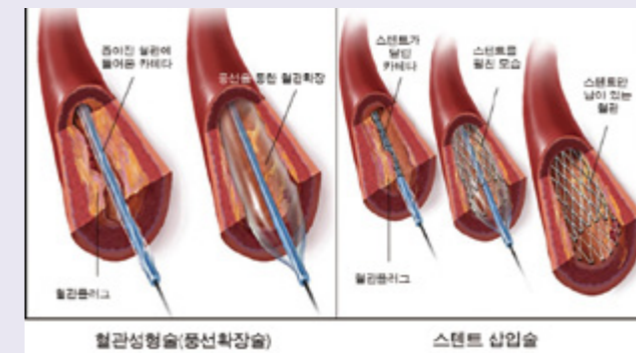
흉골(가슴 중앙부위) 부위의 간헐적인 흉통이 반복되며, 통증의 양상은 압박감이나 둔통 또는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대개 5~15분 정도 지속되며 통증 강도가 심합니다. 주로 신체 활동이 증가할 때 발생하며, 휴식으로 호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② 심근경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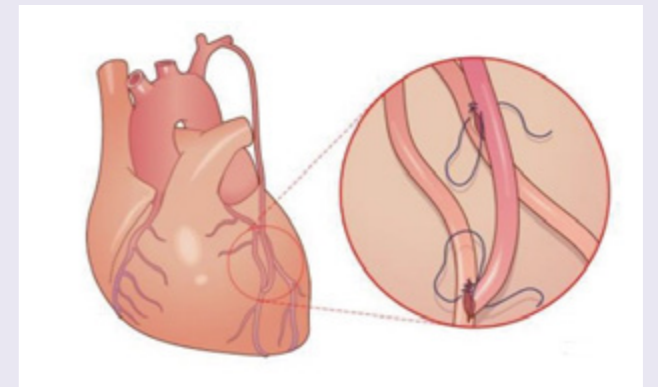
흉통은 협심증에 비해 강도가 훨씬 심하며 지속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매우 길 수 있습니다. 대개 휴식만으로 호전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 없이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땀을 흘리거나 구역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창백하며 호흡 곤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4. 심혈관 질환의 치료

관상동맥(심혈관)의 협착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로 항혈전제, 혈관 확장제, 고지질혈증 약제 등을 통하여 병의 진행을 막아볼 수 있으며, 혈관 협착이 중등도 이상(>70%)으로 진행했을 경우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혈관이 막히거나 스텐트 시술이 불가능한 병변을 보이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꾸준히 치료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비만 치료의 새로운 혁신: GLP-1 계열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아산충무병원 내분비내과 한정희 과장



최근 비만 치료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의 등장으로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와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는 대표적인 주사형 GLP-1 계열 약물로, 기존의 생활습관 교정 중심 치료를 넘어 약물 기반의 적극적 비만 치료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마운자로는 GIP/GLP-1 이중 작용 기전을 통해 위고비 대비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하며,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차세대 경구용 GLP-1 계열 약물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비만 치료의 접근성과 확장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핵심 비교

• 작용 기전

위고비는 GLP-1 수용체 단일 작용제로 식욕 억제, 위 배출 지연 및 혈당 조절을 통해 체중 감소를 유도합니다. 반면,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 작용제로, 인슐린 분비 조절 및 중추 식욕 억제 효과가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 체중 감량 효과

임상시험 결과에서 위고비는 평균 15% 내외의 체중 감소를 보인 반면, 마운자로는 평균 2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으며, 25% 이상 체중 감소에 도달한 환자 비율 또한 유의하게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 임상에서 약제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시장 및 임상적 위치

초기 GLP-1 계열 비만 치료 시장은 위고비가 주도하였으나, 마운자로의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치료 전략 및 처방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안전성 및 부작용

두 약물 모두 오심, 구토, 설사 또는 변비 등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보고되며, 대체로 용량 증량 초기 단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전반적인 안전성 프로파일은 유사하나, 마운자로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약간 적을 수 있으나 개별 환자의 내약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차세대 경구용 GLP-1 치료제의 등장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주 1회 주사제라는 점이 불편감을 증



가시킬 수 있으므로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경구용 GLP-1 계열 약물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장기 치료의 장벽을 낮추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경구용 GLP-1 계열 약물로는 오르포글리포르논이 있으며 3상 임상시험에서 최대 12.4%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국내 허가 계획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릴리는 2025년 말까지 글로벌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비만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비만 치료는 더 이상 단순한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GLP-1 계열 치료제는 임상 결과를 통해 심혈관계 위험 감소, 제2형 당뇨병 예방 및 전반적인 대사 건강 개선이라는 다면적 이점을 입증해서 비만치료를 체중 감소 외에 만성 대사질환치료로 인식하는 치료 패러다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경쟁은 비만 치료의 효과적 한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여기에 차세대 경구용 GLP-1 계열 약물이 더해지면서 비만 치료는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이며, 환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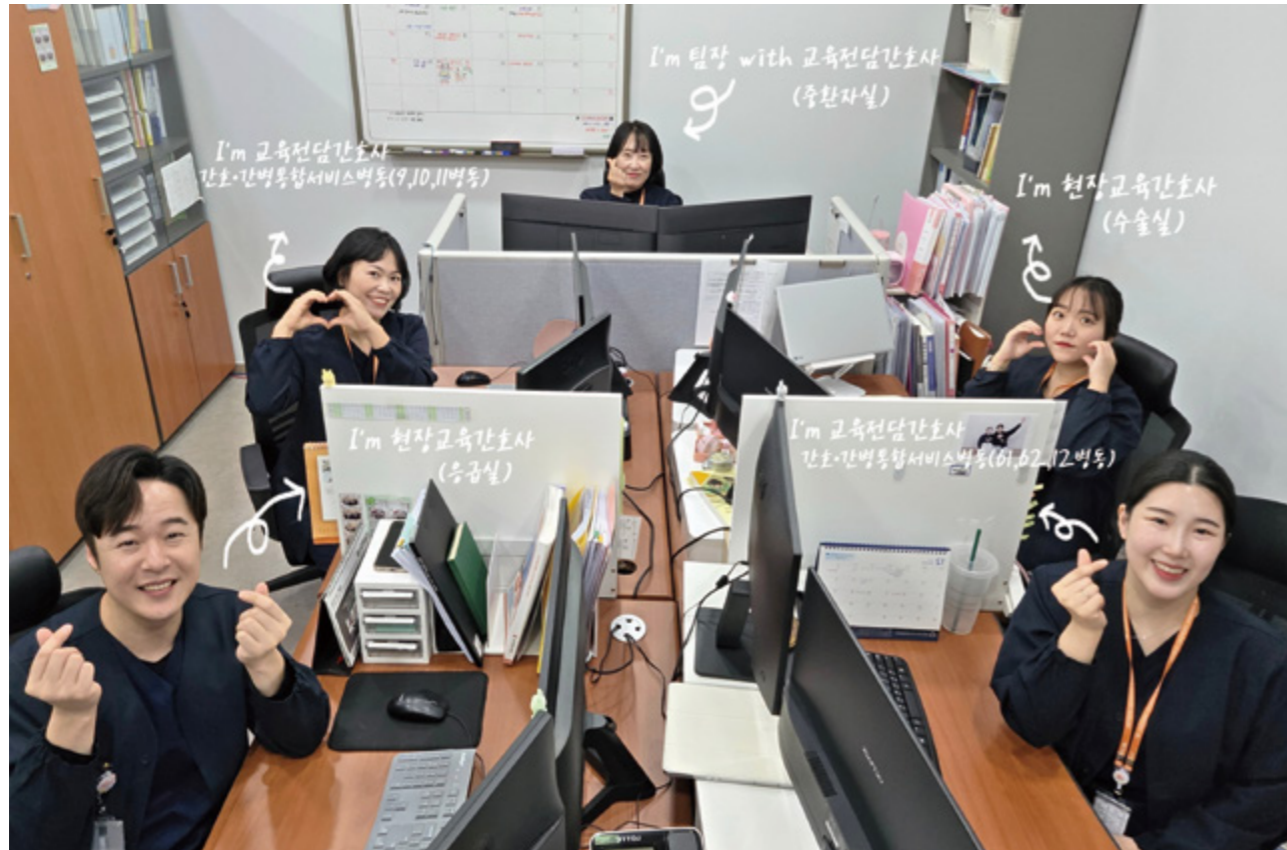
이런 비만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비만환자에게만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 고도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의 환자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GLP-1 계열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 약물 오남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 비만환자에서 체중이 감소할 때 지방 뿐 아니라 근육양도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근력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중단할 경우 감소된 근육 양으로 인해 대사가 감소하여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때는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 선택과 용량 결정 및 부작용에 대한 대처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천안충무병원

간호부교육팀을 소개합니다.



Q. 천안충무병원 간호부교육팀을 소개해주세요.

A. 천안충무병원 간호부 교육팀은 필수의료교육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교육팀으로 구성된 부서입니다. 교육팀은 높아지는 환자 중등도와 전문 간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운영·평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신규간호사를 위해 신규 표준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임상 교육의 관리·지도, 실무 적응 지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력 단계에 맞춘 체계적 학습 및 평가 체계,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중심 교육등을 통해 재직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간호부 교육팀은 모든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환자에게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Q. 일을 하시면서 힘들거나 보람을 느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교육팀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순간은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의 빠른 흐름과 높은 중증도에 압도되어 힘들어할 때입니다. 교육자로서 아무리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도,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는 신규 선생님들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지쳐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과 개별 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실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초기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라고 걱정하던 신규 선생님이 몇 달 후에는 환자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동료들과 능숙하게 소통하며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임상 적응을 끝까지 함께 지지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교육팀에서 일하는 이유이자,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간호부 교육팀의 목표는 근거 중심의 정확한 교육과 실제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실무 중심 학습을 제공하여 간호사가 임상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교육 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간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임상 적응을 돕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 체계와 실제 간호업무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량 중심·성과 중심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현장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간호 교육의 표준을 선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Q.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간호부 교육팀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편하게 질문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실수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팀이 아니라, 간호사가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고 환자에게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간호사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끝까지 함께하며, 더 나은 간호를 만들어가는 교육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자 맞춤형 양방향 내시경 척추 치료 ”



아산총무병원

척추 내시경 센터를 소개합니다.



주요 진료 분야

- 경추, 흉추 및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치료
- 경추, 흉추 및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 치료
- 요추 신경 감압술 및 유합술 치료

사람의 무릎을 펴고 두 발로 걷는 이동 능력은 다른 동물들보다 많은 자유를 줍니다. 인간은 두 발 직립 보행을 하면서 사족 보행을 할 때보다 35%의 열량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남게 된 에너지는 더 많이 뇌에 공급되어 높은 지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수많은 발명품과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걷기'의 시작은 기동의 역할을 하는 척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기동 안에는 온몸을 지배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족 직립 보행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많이 사용하게 되어 척추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척추 측만증 및 감각 저하 및 심한 신경

[척추내시경센터 주요시설(장비)]

1688 Advanced Imaging Modalities 4K Platform

- Native 4K**: Consistently bright, crystal-clear images in 4K.
- Enhanced visualization**: Superior image clarity shows anatomical color registration and enhanced light quality.
- Auto-light technology**: Illuminates your lighting to prevent interferences with Auto-light.
- Total control**: Control your entire visualization system from one compact unit or with just your mouse. It's up to you.
- Wireless device control**: Control Stryker's essential devices wirelessly.
- Integrated innovation**: Operate Stear & EP Probe functionality with one all-in-one remote.

[선명한 화질로 아픈 곳을 잘 보여주는 4K 내시경 유닛 'Stryker 1688 4K']

[Slim Rotation 기술로 안전하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내시경용 드릴 'NSK Primado 2']

[작은 부위를 안전하게 지혈해 주는 고주파 절제술 기기 'Delphi']

통증, 그리고 신경 마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연령에서 척추 질환이 생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빈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 부품처럼 연식이 오래되면 부품을 교체하면 좋겠지만 척추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 부품 교체 불가능에 빠진 인간에게 척추 내시경 치료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의 문제는 대개 물리적으로 신경 압박을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주된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조절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물리적인 제거 방법으로 현미경 치료와 내시경이 있습니다. 현미경 치료는 고식적인 치료로 치료 절개 부위가 넓고 또한 시야가 제한되어 환자의 세세한 해부학적 구조를 보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내시경 치료는 첫 번째로 절개

부위가 7mm 정도로 상당히 작고 근육 손상이 적어 수술 후 통증이 현미경 치료보다 적으며 두 번째로 이로 인한 보행의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세 번째로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환자의 여러 가지 구조를 1mm 근처까지 자세히 확인 가능하며, 또한 병변에 대한 시야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병변 제거를 하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네 번째로 멸균 생리식염수라는 매질(Medium)을 이용하는 특수성이 있어 감염 발생률이 상당히 낮으며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으로 고령 및 만성 질환자 등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척추 치료의 대안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환자의 정확한 척추 질환 진단을 기반으로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통하여 환자 맞춤형 척추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한 척추 생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충남지역 최초 최신장비 도입.. 펄스장 절제술 성공



▲ 펄스장 절제술을 시행 중인 천안충무병원 순환기내과 이성수 과장

천안충무병원은 충청권 최초로 설치한 최첨단 베리펄스(Varipulse) 시스템을 이용하여, 순환기내과 이성수 과장이 20대 남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첫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을 시행해 완벽히 성공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펄스장 절제술(PFA)은 고강도 전기장을 이용해 심장조직 내 세포막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고온(고주파)이나 극저온(냉각) 방식과 달리, 식도·신경·혈관 등 주변의 비표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시술안전성이 높고 회복기간도 단축됩니다.

이 장비는 국내 도입된 PFA 솔루션 중 3차원의 심장 지도화(3D 매핑)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이며 베리펄스가 유일하며, 이 기술은 좌 심방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밀한 3차원 이미지로 구현하며, 카테터의 경

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베리펄스 카테터는 환자 개개인의 심장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 카테터의 크기 조절이 가능해 환자의 심장 모양에 최적화된 시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리펄스 플랫폼은 PFA 치료에 3차원 심장 구조 지도화 기능과 심장내초음파(ICE) 기능을 통합해 심장 내부의 실시간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이성수과장은 "심방세동 및 빈맥 환자는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PFA 도입으로 인해 심방세동 부정맥환자들에게 신의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온(고주파)이나 극저온(냉각) 치료보다 시술 후 회복도 빠르고 합병증도 낮아 더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최신 치료를 받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김수중 교수 초빙

‘심혈관센터 진료역량 강화’ 기대



▲천안충무병원 심장내과 김수중 교수

천안충무병원은 전문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심장내과 김수중 교수를 새롭게 초빙하여 진료를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중 교수는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을 비롯해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등 심혈관 질환 전반을 전문으로 진료할 예정입니다. 김 교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및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서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5년부터 2024년 까지 정교수를 역임하며 심장질환 진료와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 심장내과에서 연수를 받는 등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천안충무병원 권준덕 이사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연구 경력을 갖춘 심장내과 김수중 교수의 합류로 심혈관 질환 진료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 의료진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영화와 함께한 쉼, 직원 영화관람 문화행사

직원힐링데이 단체영화관람 안내

일시
2025년 12월23일(화) 18시

장소
이지빌딩 2층 교육센터

대상
희망하는 전직원

내용
영화관람, 치맥타임, 경품추첨 등



천안충무병원 상조회에서는 직원들의 여가 활동 지원과 정서적 휴식을 도모하고자 영화관람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업무로 인한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관람 영화는 유쾌한 상상력과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스위치로 선정하였으며, 영화 상영 전에는 상조회에서 준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여 행사의 즐거움을 더하였습니다. 영화 상영 동안 직원들은 웃음과 공감을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관람을 이어갔으며, 행사 이후에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여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화관람 행사는 직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조직 내 소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상조회는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천안충무병원 **손위생 증진 및 주사침 자상 예방 캠페인 실시**



천안충무병원 감염관리실에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감염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위생의 중요성과 주사침 자상 예방에 대한 인식 고취를 목표로 2025년 4분기 손위생 증진 및 주사침 자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적인 손위생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주사침 자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행동 수칙을 공유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천안남산초등학교와 협약 체결**



천안충무병원과 천안남산초등학교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학교 야구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11월 26일 천안남산초등학교에서 천안남산초등학교 김지한 교장, 영서의료재단 천안/아산 충무병원 권준덕 이사장 등 학교 및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료편의를 제공하고, 학교 야구부의 건강관리 및 부상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 복지 향상과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충무병원 **천안서북소방서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천안충무병원은 12월 10일 천안서북소방서와 함께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응급환자 수용 지연에 따른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 기관의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 Pre-KTAS Level 1·2 중증환자 우선 수용 ▲ 1차

환자평가 후 전원 시 구급대 초기 처치 지원 협조 ▲ 병상 부족 시 즉시 안내 및 공유체계 강화(지연방지) ▲ 그 외 개선사항 및 발전방안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천안충무병원 권준덕 이사장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서북소방서 김종욱 서장은 “소방과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천안충무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응급의료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천안충무병원 **2025년 개인보호구 착용의 실습 교육 실시**



천안충무병원 감염관리실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간호부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보호구(PPE) 착용의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보호구는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질환의 종류와 감염 노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 선택과 정확한 착용의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바른 착용 순서와 제거 방법을 비롯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병행하여, 직원들이 감염위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환자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충무원/영서원

노인의료복합단지개원기념식 개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개원 20주년, 충무원 개원 17주년, 영서원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개원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영서원 1층에서 열렸으며, 권준덕 신임 이사장님, 권영욱 의료원장님, 이지혜 전 이사장님, 문태순 원장님을 비롯한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와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사원으로 노인병원 정미나, 충무원 노연진, 영서원 조성임 직원이 선정되었으며, 10년 근속표창은 노인병원 박주혜, 충무원 김영미, 영서원 김성삼·김난향 직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모범사원 표창은 노인병원 최희원·정희정, 충무원 김인자·한경순, 영서원 고경아·박정욱 직원에게 수여되었고, 우수친절간병인으로는 간병사 전춘자, 이

란숙 간병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봉사상은 충무원 이미용 봉사자 이도희, 영서원 이미용 봉사자 김영희 봉사자에게 전달되었으며, 건강장수는 충무원 원찬희·이재숙, 영서원 변복순·조옥기·서영숙 어르신이 수상하였습니다. 20년 근속표창은 노인병원 채진영, 하영철, 신영숙, 이영란 직원에게 수여되었고, 친절사원으로는 노인병원 정희정, 충무원 홍유리, 영서원 김난향 직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 이후에는 개원기념 떡케이크 커팅식이 이어지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진행된 20년 근속표창은 오랜 기간 병원을 위해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천안·아산충무병원

2026 영서의료재단 해맞이 행사



2026년 새해를 맞아 영서의료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모여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새해의 첫 해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영서의료재단이 나아갈 방향과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해맞이 행사는 2026년 영서의료재단 슬로건인 '혁신·변화·협력'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고민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직무와 부서를 넘어 서로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습

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새해의 각오를 담아 힘찬 구호와 함께 서로를 응원하시며,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함께한 웃음과 격려는 영서의료재단이 하나의 팀으로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서의료재단은 앞으로도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고,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26년이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힘차게 도약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천안충무병원 제 15회 QI 경진대회



호업무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5병동, 「외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기관 이미지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직업환경의학과 작업환경측정팀이 수상하였습니다.

포스터 참가인 「외래채혈실 내원고객 만족도 향상활동」을 주제로 한 진단검사실, 「육창 간호 중재 수행도 향상 및 개인 위생 관리 강화를 통한 육창 발생률 감소 활동」을 주제로 한 9병동, 「전자결재 사용률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주제로 한 충무행정부, 「현장기반 환자안전 라운딩 효과분석」을 주제로 한 QPS실, 4팀의 QI활동도 경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입구에 포스터를 전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발표를 마치고 이어진 총평에서 권준덕 이사장님은 “15회 QI 경진대회를 맞이하며,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병원이 더 좋은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QI활동을 수행해 주어 감사드리며, 우리 병원이 조금 더 좋은 병원, 여러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병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직원분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고, 저 역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의 대표는 저로 되어 있으나, 이 병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병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QI활동과 감염관리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병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2월 09일 심사위원 및 발표자를 포함한 70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 15회 QI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QI 경진대회는 1년 동안 부서에서 열정과 노력으로 진행했던 의료 질 향상 활동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QI활동은 모두 11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 중 구연발표 7팀이 1년간의 QI활동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은 「환자안전을 위한 내시경실 감염관리 업무 표준화」를 주제로 발표한 내시경실이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주제로 발표한 관리부와 「심정지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한 간호실무 대처능력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응급실이 수상, ▲장려상은 「Home exercise(자가운동)영상 제공을 통한 치료 질과 대상자 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재활치료실, 「퇴원 심사 시간 단축」을 주제로 발표한 보험심사실이 수상, ▲열정상은 「섭취, 배설량 표준화를 통한 간

아산충무병원 제 9회 QI 경진대회 개최



2017년부터 개최한 아산충무병원 QI 경진대회가 9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해주어 응원전부터 발표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6팀이 QI 활동 사례발표를 했으며 10팀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사례 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중환자실이었으며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활동’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 교육의 구조가 미흡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 업무 분장과 신규 교육 체계화를 통해 개인 역량 강화를 실현하고자 현황 파악부터 개선활동까지 실

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효율적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직원들의 체감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으며 중환자실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수 포스터상은 내시경실이 수상하였습니다. 내시경실은 신규 인력 증가로 업무 능력 저하 및 업무 연속성과 환자안전 측면의 문제를 선정하여 꾸준히 개선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QI경진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들이 개선 활동을 위해 힘써주어 의료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PS실에서는 의료 질 향상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산충무병원 인공관절 수술 로봇 ‘마코 스마트로보틱스’ 도입



아산충무병원은 최근 인공관절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마코 스마트로보틱스’(이하 마코 로봇)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슬관절 전치환술 등에 사용되는 최신 로봇 수술 시스템으로, 미국 FDA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150만 건 이상의 임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마코 로봇은 수술 전 과정에서 환자의 무릎 상태를 3D CT로 촬영한 뒤, 이를 3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마다 각기 다른 뼈의 모양과 인대 상태를 파악하며,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뼈 절삭 범위와 인공관절 삽입 위치를 설정합니다. 실제 수술 시에는 햅틱 기술이 적용된 로봇 팔이 집도의의 수술을 보조합니다. 햅틱 기술은 설정된 수술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작동을 제어하여 정상적인 연부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며, 출혈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산충무병원은 이번 로봇 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자 개별 맞춤형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수술 오차를 줄이고 진료 환경을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산충무병원 지역발전을 위한 후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전, 아산충무병원은 아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뜻 깊은 행사에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아산충무병원이 지역 주민들의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돕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넘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동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5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 후원자원봉사자의 밤 행사에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산시합창단 주관으로 '제19회 이웃사랑 라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2007년부터 18년간 5만 박스가 넘는 라면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뜻깊은 음악회에 아산충무병원이 후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충무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의 희망을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산충무병원 간호본부, 연말 맞이 소외된 이웃위해 이웃사랑 실천



아산충무병원 간호본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간호본부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석촌재단 '메종드에스브야'와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인 '따뜻한 동지'를 직접 방문해 사랑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아산충무병원 간호본부가 주최한 '환자 안전의 날' 행사 수익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간호본부는 행사 기간 중 직원들이 십시일반 물품을 모아 진행한 '아나바다' 바자회 수익금에 간호본부 자체 모금액을 더해 기부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후원 물품은 시설 내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지원과 그룹홈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산충무병원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의 사명처럼, 지역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천안충무병원 2025년 천안충무병원 상조회 우수직원 시상 및 근속 25년 장기근속 포상 진행



천안충무병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병원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상조회 우수직원 시상과 근속 25년 대상자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에서는 각 부서에서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과 동료 간 협력을 통해 모범이 된 총 8명의 직원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자는 내시경실 손지예 간호사, 중환자실 이이슬 주임간호사, 9병동 이은숙 요양보호사, 외래(주사실) 김소라 주임간호사, 진단검사실 김승범 임상병리사, 원무부 이정수 주임, 영상의학실(심초음파) 송유정 방사선사,

구매부 김수현 주임입니다. 아울러 병원의 성장과 함께 오랜 시간을 묵묵히 걸어온 장기근속자를 격려하기 위해 근속 25년 포상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근속 25년 포상 대상자는 관리부 조형원 이사, 진료협력센터 김태현 소장, 원무부 이종원 부장, 진단검사의학과 서경숙 실장으로, 변함없는 책임감과 헌신으로 병원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상조회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총무과 이영란 과장

글
총무과 이영란 과장



저희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25년 04월30일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천안시립치매안심병원이라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치매안심병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치매안심병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치매안심병원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치매의 진단과 치

료·요양 등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2. 치매안심병원의 설치목적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3.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 우선 입원 대상

- 급성으로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치매환자
- 행동심리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적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 (자신과 타인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섬망(급성 혼란상태)이 동반된 치매 환자

4. 치매안심병원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환자 증상의 종합적 평가를 근거하여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진단 및 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 행동심리증상 치료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전문적 약물적·비약물적 개입
- 입원 후 개인, 집단 및 소그룹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치매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
 - 퇴원 후 연계되어야 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조사·의뢰 포함

5. 제공프로그램

- 개인, 집단 및 소그룹의 인지치료, 회상치료, 감각치료(음악, 스피치, 노즐렌 등), 운동요법, 인정요법 등 비약물 프로그램 제공
-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치매에 대한 정보제공,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인연, 총무원

총무원 영양사 정미영



글
영양사 정미영

저와 총무원 인연은 10년 전 봉사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였는데 대부분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봉사를 했지만 가끔 총무원에 봉사지원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며 공기도 맑고 두눈에 가득 담기는 아름다운 전경에 누구보다 어르신을 생각하는 곳임을 느끼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총무원의 영양사로 입사하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마음을 이어받아 출근길이 즐거울 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원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의 저는 걱정이 컸습니다. 병원에서의 경험은 있지만 요양원 경험이 없어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반겨주시는 원장님과 직원들을 보며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보람찬 마음과 다르게 이제는 누구보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활기찬 인사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총무원 직원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조리원 선생님들과 모여 회의를 하며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자재를 꺼내 전처리하는 조리원 선생님의 화려한 칼질에 맞춰 올리는 도마소리와 작은 일에도 깔깔 웃는 여사님들의 웃음소리 외에도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찬 주방은 늘 시끄럽지만 정다운 곳입니다. 총무원의 주방은 어느 곳보다 바쁘고 힘든 곳이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마치고 "오늘 밥이 참 맛있네"라는 칭찬을 해주실 때입니다. 그 한마디가 고된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만들 만큼 큰 에너지가 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르신들의 입맛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 식재료를 활용해 계절음식, 명절음식, 그 외에도 매일 어르신들과 상담을 통해 선호도 조사를 하여 '음식으로 느끼는 정'이

전달되도록 노력합니다. 요양원이란 곳이 생소했던 저는 총무원 영양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영양"은 단지 영양소의 균형이 아니라 '마음의 영양'도 함께 전달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따뜻한 한 끼가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이 되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한마디와 미소는 다시 제게 돌아와 더 큰 보람으로 남아 영양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옛말에 '한 술밥'은 같은 술에서 밥을 나누고 먹는 사람들로써 가까운 사람,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을 의미하듯이 총무원 어르신들과 직원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진 한 술밥을 먹는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잘 먹었다"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어르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식단을 짜고, 사랑으로 음식을 대하는 영양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픔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길에서 만난 따뜻함

영서원 영양보호사 박경희

글
요양보호사 박경희



가게를 책임지며 앞만 보고 달려오던 어느 날, 갑작스레 몸 곳곳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건강에 대한 여러 생각이 밀려왔고,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잠시 가게를 내려 놓게 되었지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은 물론,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관심이 생겼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길이 바로 영양보호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함께 돌보는 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아픔을 겪으며 '건강과 삶을 책임지는 일'에 대한 마음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영서원의 문을 두드리던 첫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어르신들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함

니다. 영서원에서의 하루는 어르신들의 세면을 돕고, 식사를 챙겨 드리고, 불편함을 느끼실 때 곁을 지켜드리는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손을 잡아드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져 나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르신들께서 먼저 안부를 물어주시거나 저를 찾아 주실 때면 순간 놀라면서도 가슴 속 깊숙이 뿌듯함이 피어오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 손이 모자를 때마다 함께 달려와 힘이 되어주는 동료 선생님들이 있기에 영서원에서의 하루는 더없이 든든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영서원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어르신들께 도 늘 따뜻하고 특별한 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세

총무노인복지센터 영양보호사 표예숙

글
요양보호사 표예숙



저는 영양보호사입니다. 이 직업은 노인이 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양보호사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음을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어르신 집에서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에 서비스 전 준비를 하고 후에는 확인을 통해 다음날 계획을 미리 숙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다리가 불편하고 기저귀 케어가 필요한 2등급 와상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경직이 오지 않나 체위변경 시 어느 부위가 통증이 있는지, 욕창은 정확히 몇 단계인지 어느 부위인지 알고 체위변경 시 아프지 않게 복지 용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불편함을 참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아픈 부위가 다리라 할 지라도 머리 팔 허리 엉덩이 다리 모두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후 꼭 하는 일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보호자와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합니다.

식사역시 당뇨와 기저질환을 확인 후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음식종류와 식사량을 조절합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아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의 역할은 소통과 의견으로 이어져 어르신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 역시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뿌듯한 하루를 보내며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영양보호사로 나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영양보호사의 직업적 윤리를 지켜 주변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예로 방문시간 10분전에 도착하여 서비스

준비를 하고 부득이게 방문이 어려울 경우 당일보다는 그전에 알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르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 개인 위생 역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벼운 질환이 어르신들에게는 중증질환으로 힘들어하실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여름철 에어컨을 항상 일정온도로 설정해놓고 선풍기는 어르신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일상을 함께하는 일은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동반됩니다.

시계의 시 분 초바늘이 일정한 규칙에 맞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양보호사 역시 어르신과 보호자와 함께 무언의 규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느리게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함께 천천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은 오늘입니다.



슈퍼루키

천안충무병원

간호부

슈퍼루키 권예림

1.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충무병원 신경과 전담간호사 권예림입니다. 현재 이재성 과장님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며 병동 입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진료와 간호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배우는 자세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과 궁금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과장님과 함께 회진을 다니며 환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확인하고, 치료 경과와 계획을 공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에게 검사 결과와 약물 치료, 향후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병의 원인과 기전, 예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서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동안의 환자 상태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고 처방을 지원하며, 퇴원 시 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및 처방 관련 보조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동 내 튜브나 카테터 등 의료용 관을 관리하고, 배액관 및 중심정맥관 제거 등의 처치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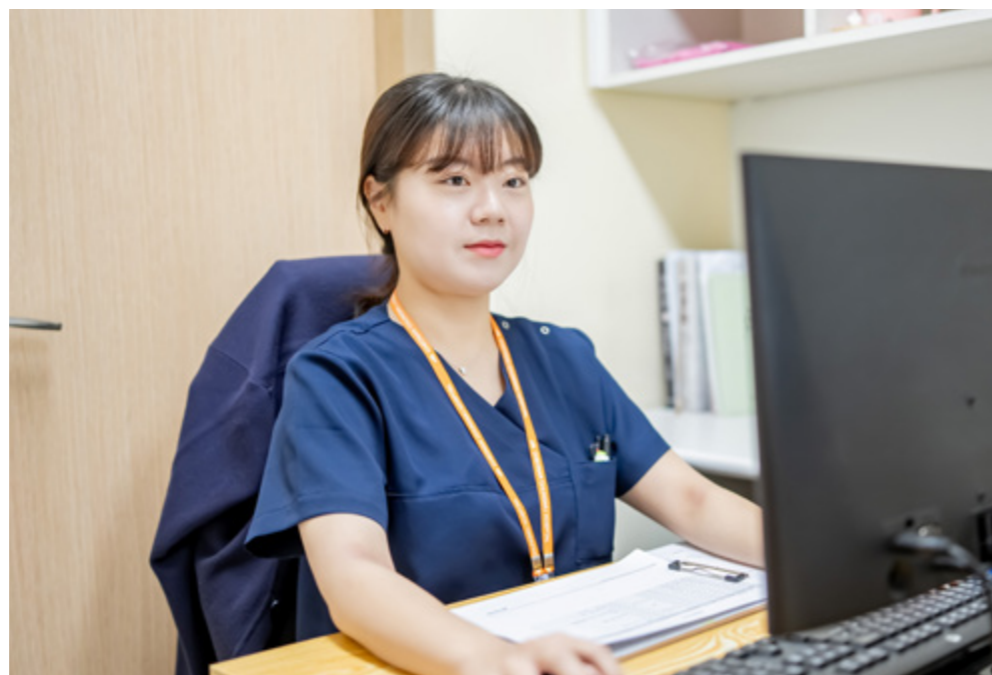


3. 앞으로 어떤 총무인이 되고 싶으세요?

항상 열린 자세로 다른 부서 선생님 및 직원분들과 소통하며,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총무인이 되고 싶습니다. 밝고 친절한 태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배우며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어, 동료들에게는 믿음직한 동료로,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4.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신경과 진료에 충실함은 물론, 다양한 진료과의 질환과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학습하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총무병원의 슈퍼루키가 되겠습니다.



고, 시술 전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 및 준비 사항을 점검하여 시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술 중에는 무균술을 철저히 유지하며 의료진을 보조하고, 환자의 활력징후와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시술 후에는 천자 부위와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교육과 간호를 수행합니다.

3. 앞으로 어떤 총무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산충무병원에서 환자와 동료 모두를 존중하는 총무인이 되고 싶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한명의 '대상자'가 아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간호의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작은 설명하나, 짧은 공감의 말이 환자에게는 큰 신뢰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에게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간호를, 동료에게는 신뢰와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총무인이 되겠습니다.



아산충무병원

간호부

슈퍼루키 오은지

1.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충무병원 혈관조영실 신규 간호사 오은지입니다.

2. 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혈관조영 및 중재적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며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

4.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하며,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안전하고 세심한 간호를 제공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 속에서도 침착하게 판단하고, 동료와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신뢰받는 팀원으로 자리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전문성과 인간성을 겸비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 박찬혁 과장

천안충무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께서는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이 크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 과정에서도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환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배려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 상황과 향후 경과에 대해 보호자 중심으로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보호자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었고 치료와 재활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료진의 세심한 설명과 따뜻한 태도는 향후 치료와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강동우 간호사

천안충무병원 중환자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많지 않은 시간 동안 성심성의껏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호자 면회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도움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가시기 전에 보고 싶어 하시던 일가친척분들을 모두 뵙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너무나 감사했고, 아버지께서도 매우 고마워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참으로 감사한 직업이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늘 자긍심을 가지고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임간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최현옥 간호조무사

천안충무병원 10병동



어머님의 건강 악화로 가족 여러 명이 병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간호-통합병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어머님의 입 주변을 정성스럽게 닦아 주시고, 붙어 있던 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럽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저희 가족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엇이라도 챙겨 드셔야 한다고 위로의 말씀까지 건네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나마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겨울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태운 임상병리사

천안충무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혈을 하러 가는 시간은 늘 무섭고 공포스러운 과정인데, 선생님께서는 환자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피 주십니다. 환자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 몇 번이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음 깊이 칭찬드립니다.

● 권오석 주임

천안충무병원 원무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배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퇴원 때마다 늘 마주하게 되는 분인데, 언제나 친절하게 맞아 주시는 모습 덕분에 병원비를 결제하는 순간에도 기분 좋게 병원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보험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 기타 궁금한 사항들까지 성실하게 안내해 주시는 모습을 보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세심함과 책임감을 갖춘 직원분이야말로 천안충무병원에 꼭 필요한 분이라고 생되어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김가은 간호사

아산충무병원 52병동



저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전에 입원했던 타 병원에서 10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 여러 차례 주사 처치에 어려움이 있어 양팔이 많이 부어 얼음찜질을 하며 지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산충무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서울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가은 간호사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이번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김가은 간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에서 치료를 잘 받고 돌아와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 김은영
주임간호사

아산총무병원 61병동



입원 기간 동안 김은영 주임간호사님께서는 과잉 친절이나 형식적인 응대가 아닌, 항상 세심한 태도로 돌봐주셨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조용히 물어봐 주시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입장에서 식사 상태와 컨디션을 꼼꼼히 살펴봐 주신 김은영 주임간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양해든 간호사

아산총무병원 51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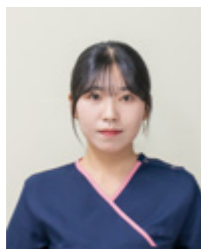


모든 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이분처럼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간호사님은 처음 뵈는 것 같은 정도로 배려가 깊은 선생님이십니다.

입원 기간 동안 세심하게 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설빈 간호사

아산총무병원 41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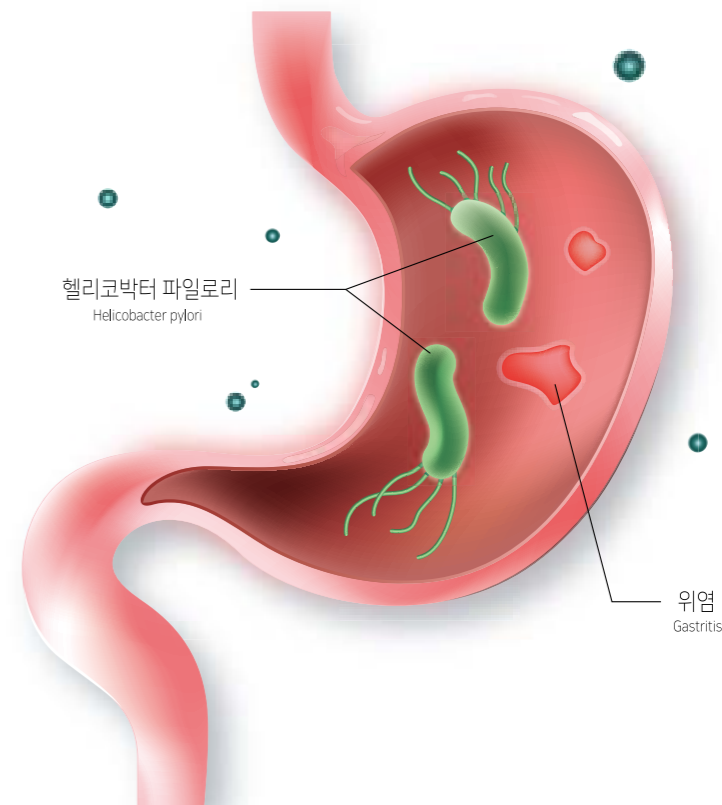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김설빈 간호사님께서 예의 바른 태도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사 처치와 돌봄을 해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몇 년 후에는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시겠다는 느낌을 받아, 이렇게 두서없이 몇 자 적어 봅니다.

헬리코박터균 즉석검사

헬리코박터균 쉽고 빠르게 즉석에서 검사하세요!



⚙ 헬리코박터균 즉석검사는

- 내시경을 할 필요가 없어 환자의 고통과 불편함이 없습니다.
- 단 한번 호흡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합니다.
- 20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이란?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위암의 원인균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천안총무병원(내시경실) 041.570.7554
아산총무병원(소화기내과) 041.536.6692

야간근무를 안전하게 만드는 세 가지 건강 전략

01

천안충무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이현교 과장



최근 '새벽배송 금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야간근무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건강의 관점에서 차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생체리듬을 흔들고 피로를 누적시킵니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하도록 설계된 인체 리듬이 반복적으로 깨지면 자율신경 조절과 호르몬 분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야간교대근무를 '2A 발암 가능 환경'으로 분류한 것도 이러한 생리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야간근무가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체리듬 교란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부 개인에게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리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부담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정한 패턴의 고정 야간근무는 비교적 적응이 가능하지만, 혈압과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서 심혈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주-야가 반복되는 교대근무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같은 야간근무라도 형태에 따라 신체가 받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건강 영향이 곧바로 "야간근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에 따라 같은 근무라도 부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방암·대장암 가족력, 고혈압·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평소 수면 문제 등의 요인을 지닌 경우에는 야간근무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초 건강 상태가 안



정적이라면 동일한 근무에도 비교적 무리 없이 적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근무 자체보다 그 근무가 개인에게 어떤 의미와 부담을 주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야간근무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자신의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 혈압·혈당의 안정성, 가족력, 기존 질환 여부를 확인하여 야간근무로 인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나 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강도나 기간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근무 형태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정 야간근무와 교대근무 중 어떤 패턴이 더 편안한지, 야간 근무 후 회복 속도는 어떠한지, 수면 리듬이 지나치게 흔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스케줄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적응력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회복을 돕는 생활 리듬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짧은 낮잠, 일

정한 수면·식사 패턴 유지, 카페인 섭취 시간 조절, 근무 전후 가벼운 스트레칭 등 작은 습관만으로도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를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절 가능한 영역을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야간근무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무 자체가 아니라, 그 근무 형태가 개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야간근무를 보다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천안충무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이현교 과장

아산은행나무길 마라톤 대회 완주기

02

천안충무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김완진 부장



제11회 아산은행나무길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 11월 9일(일요일), 아산의 대표 명소인 은행나무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마라톤 동호회도 참가하여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전원 완주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천안충무병원 마라톤 동호회는 그동안 천안 유관순평화마라톤대회, 이봉주 천안 흥타령마라톤대회, 아산 은행나무길 마라톤대회 등 천안-아산 지역의 주요 마라톤대회에 매년 참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라톤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회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2~3일 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참가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열리는 이봉주마라톤대회는 공고가 뜨는 즉시 마감되어 최근 4년간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아산은행나무길 전국마라톤대회는 신청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충무병원 마라톤 동호회는 아산은행나무길 전국마라톤대회에 제2회(2016년), 제9회(2023년), 제11회(2025년)까지 총 세 차례 참가했습니다. 이번 제11회 대회에는 5km와 10km 두 코스에 총 39명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부터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도 날씨가 무척이나 쾌청하여 마라톤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가을 날씨였습니다. 대회 당일 대회장소인 아산시 곡교천 다목적 B광장에 마련된 천안충무병원 마라톤동호회 부스로 8시20분까지 집합하여 대회를 준

비했습니다. 기록용 칩이 부착된 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기록용 센서인 일회용 칩을 운동화 끈에 구겨지지 않게 가지런히 부착한 후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따끈한 차 한잔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10km 종목에는 저와 조형원 이사님, 이갑인 팀장님 등 총 8명이 참가신청을 했고, 5km 종목에는 이경희 간호본부장님 외 30명이 참가 신청하였습니다. (하프 종목은 신청자 없음) 드디어 8시50분, 하프 참가자들이 먼저 출발선에 모여 함께 몸을 풀기 시작하였고, 9시 정각 출발 소리와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곧바로 10km 참가자들이 출발선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며 몸을 풀었고 9시10분 총소리와 함께 10km도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5km 참가자들도 힘차게 출발하면서 총 4,500명의 참가자가 코스로 향했습니다.



10km 코스 3km 지점에서는 아산충무병원 응급차량이 대기 중이었고, 반환점을 지나 9km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동 방송 차량에서 하프 선두 주자가 골인 중이라는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골인 지점을 약 300m 남긴 곳에서는 간호본부장님, 간호과장님 등 여러 선생님들이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완주에 성공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호회 회원들도 하나둘씩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개인 기록은 휴대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념품과 기념메달을 수령한 뒤 천안 시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깃집에서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고 마라톤의 피로를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라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한 건강관리의 측면뿐만 아니라, 땀 흘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을 때 느껴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취감과 행복감 때문입니다.

초반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 후반에 급격한 피로가 오기 때문에, 첫 3분은 천천히 출발하고 이후 자신의 리듬에 맞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고 스마트하게 달리는 법을 익힌다면 누구나 목표한 완주의 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천안충무병원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의 소중한 우정이 더욱 꽃피는 아름다운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산은행나무길 전국마라톤 대회에 부상 없이 완주해 주신 천안충무병원 마라톤 동호회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걷는 즐거움, '아산가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03

아산총무병원 총무행정부 이재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렘을 안고 배방산 산행과 회식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야속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고대하던 산행은 아쉽게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에 마음은 무거웠지만, 여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회식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당연히 바로 고기를 굽는 자리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동호회장님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미니게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식 시간이 늦은 점심 시간이다 보니 “배고폰데 바로 밥 먹으면 안 되냐”는 귀여운 원성도 잠시 나왔지만, 팀을 나누어 게임이 시작되자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푹 빠져 즐

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띤 게임이 마무리된 후에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를 먹으며, 지난 활동에 대한 추억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산악회 '아산가자'가 첫발을 뗀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병원 내 동호회 활동이 잠잠해졌던 시기에, 아산총무병원에 다시금 소통의 숨결을 불어넣은 시발점이 바로 '아산가자'였습니다. 고맙게도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현재는 북클럽, 점핑, 야구 등 다양한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식 자리에서도 러닝 동호회를 새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오가는 모습을 보며, 병원 내에 흐르는 건강한 에너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산가자'는 저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부서 사람들만 알고 지내며 동호회 활동에 선뜻 나서지 못하던 제가, 이 활동을 통해 수많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소중한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보아오던 '보편적인' 조직 문화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지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동료들과 동호회 활동을 통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또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퇴근 후의 시간은 소중한지만, 그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 동료들과 함께 보낸 경험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낯가림이 심한 제가 '아산가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회장님과, '산'의 산 자도 모르는 저희를 늘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산악대장님, 그리고 언제나 함께 산행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가자'가 소수만 즐기는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앞으로도 병원 식구들과 지인분들께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활기찬 교류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산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달의 친절사원



천안충무병원

중환자실 강동우 주임간호사

안녕하세요 중환자실 주임간호사 강동우입니다. 11월 친절직원에 뽑히게 되어 간호사로서 하나의 보람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 너무나 뜻깊습니다. 올 한해 같이 고생한 중환자실 선생님들과 총무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충무병원

원무부 주임 박원우

부족한 저를 이 달의 친절사원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충무병원

원무부 권오석 주임

이번 11월 친절사원을 받게되어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제가 맡은 업무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직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충무병원

보험심사실 주임 최경정

제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온 점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친절사원 선정을 통해 작은 배려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충무병원

51병동 영양보호사 권순화

친절사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병원은 몸의 병을 치료하는 기관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저는 병으로 지친 환자들에게 마음의 힘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 마음으로 다가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시는 우리 병동 수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충무병원

52병동 주임간호사 조가인

제가 친절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뛰어준 우리 동료 간호사들 덕분입니다. 제가 흔흔거리며 환자분들을 챙길 때마다 뒤에서 눈치껏 수습해 준 선생님들께 이 영광의 지분 99%를 넘깁니다. 상은 제가 받았지만 커피는 제가 쏘 테니, 앞으로도 저의 이 무심한 다정함을 잘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래진료안내 [천안/아산충무병원]

2026.01.05. 기준

진료과	전문의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천안 360-1039, 1040				
소화기내과	김병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소화기질환,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간암
	정지현	월 화 목 금 토	월 화 금	소화기질환, 위대장내시경, 채담도진료, 치료내시경, 내시경역행담체관조영술
	박범수	월 수 목 토	월 수 목	소화기질환(위장관, 간, 채담도), 소화기내시경, 소화기암
	김새인	화 수 금 토	화 금	소화기질환(위장관, 간, 채담도), 소화기내시경
	이지영	월~토	월~금	위·대장질환, 간, 담도, 채장 질환, 대장 치료 내시경
아산 536-6691 / 6692 336-6150 / 6151				
소화기내과	이정일	월 화 수 목 토	월~목	간암, 간경변, 간염, 지방간, 위장관 질환
	설재일	월 수 목 금 토	월 수 금	위·대장질환, 간, 담도, 채장 질환, 대장치료 내시경
	이정록	화~토	화~금	위·대장질환, 간, 담도, 채장 질환, 대장치료 내시경
	김진홍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위장관 치료내시경, 채·담도 질환
	조훈길	월 화 수 금 토	월 화 금	간염, 지방간질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기타 간질환, 위장관 출혈 지혈술, 위·대장내시경 및 치료내시경
이기영	월 화 수 목 토	월 수 목	위·대장질환, 간, 담도, 채장 질환, 대장치료 내시경	
천안 360-1024 / 1208				
심장내과	강홍신	월~토	월~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부정맥, 심방세동
	김철민	월~금	월 화 목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부전증, 심장판막질환, 부정맥
	김수중	월~토	화	허혈성 심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
	이상수	월 화 수 금	월 금	부정맥 시술, 부정맥, 실신,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아산 536-6660 / 6658 336-6235 / 6236			
심장내과	심원홍	월~수	월~수	대동맥중재시술, 말초혈관중재술, 승모판 확장술, 각종 심장질환
	신현호	화~금	화~금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동맥경화증, 부정맥
	장기설	월~토	월 목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 & 말초혈관중재시술
	최대식	월 화 수 금 토	화 수 금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관상동맥&말초혈관 중재시술, 심박동기시술
	이동훈	월 화 수 목 토	월 화 목 금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질환
천안 570-7653/ 360-1023				
호흡기내과	신계철	월~금	월 화 목	호흡기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기관지내시경
	김영	월~토	월~금	호흡기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기관지내시경, 기관지질환
	아산 536-6674 / 336-6192			
호흡기내과	강신명	월~토	월~금	호흡기질환, 폐암, 천식,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문승혁	월~토	월~목	급성-만성기침,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늑막질환, 천식, 만성폐질환, 결핵, 폐암
	아산 336-6183			
감염내과	라상현	월~토	월~금	세균/바이러스 감염, 결핵, 말라리아, 불명열, 감염질환, HIV 감염, 감염관리
천안 360-1030 / 1015				
신장내과	백은기	월~토	월 화 수 금	급만성신염, 신증후군, 신부전, 요로감염, 혈액투석, 당뇨성 신장병, 고혈압 및 고혈압성신장병, 혈뇨, 단백뇨
	조성호	월~토	월~금	만성콩팥병, 투석, 말기신부전, 혈뇨, 만성신부전, 당뇨병성신질환, 단백뇨, 사구체신염, 신성고혈압, 신장질환, 부종
	김지은	월~토	월~금	만성콩팥병, 급성신부전, 혈뇨, 단백뇨, 부종, 투석, 당뇨병성 신장병, 신증후군, 고혈압 및 신성 고혈압, 요로감염, 사구체신염
아산 536-6673 / 336-6183				
신장내과	이설라	월~토	월~금	급만성신염, 신증후군, 신부전, 요로감염, 혈액투석, 당뇨성 신장병, 횡문근융해증, 혈뇨 및 단백뇨
	최재신	월~토	월~금	급성신부전,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신증후군, 전해질 이상, 부종
	천안 360-1173			
내분비내과	손영석	월~토	월~금	당뇨,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비만
	아산 336-6198			
내분비내과	한정희	월~토	월~금	당뇨병, 비만,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및 골다공증관련 질환을 담당, 갑상선 기능이상 진단 갑상선결절 진단 및 치료
	천안 570-7509			
관절·류마티스내과	정예지	월~토	월~금	류마티스질환, 퇴행성 관절염, 통풍, 양성혈액질환
천안 360-1038				
신경과	최문성	수 금 토	월~목	치매,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말초신경질환
	이재성	월~토	월 수 금	뇌졸중, 뇌혈관질환(뇌혈관시술), 두통, 어지러움증, 말초신경질환, 뇌전증
	아산 536-6626			
신경과	홍기무	월~토	월~금	뇌졸중, 두통, 치매, 어지럼증, 파킨슨, 뇌전증, 안면신경마비, 손발저림, 손떨림증

진료과	전문의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천안 360-1083					
소아청소년과	정사준	월~목	월 수 목	열성경련, 뇌전증(간질)등 경련성질환, 운동/정신발달장애, 급·만성두통, 기타 소아신경질환, 영유아검진, 육아상담	
	아산 536-6678 / 6630				
	신학휴	월~토	월~금	소아/청소년 질환, 성장발달, 소아아토피, 유학검진, 예방접종, 학생건강검진	
	이금노	월~토	월~금	호흡기알레르기, 소화기질환, 소아내분비질환(성조숙증, 저신장, 소아당뇨), 영유아검진	
	이동협	달빛어린이병원 전담		호흡기알레르기, 소화기질환, 소아내분비질환, 성조숙증, 저신장, 소아당뇨	
김수천	달빛어린이병원 전담		호흡기·소화기 질환		
천안 360-1019					
가정의학과	박성민	금 토	월 화 목 금	건강검진센터 결과상담, 소화기내시경, 비만클리닉, 금연클리닉, 피부질환, 성인병	
	아산 536-6748				
	윤방부	월 화 수 금	-	가정의학, 노인의학, 피부, 정신건강, 비노기, 스트레스, 만성피로, 항노화, 영양요법	
유진호	월~토	월 화 수 금	가정의학, 노인의학, 금연클리닉, 비만클리닉, 예방접종, 만성피로 영양요법		
김덕현	월~토	월 화 목 금	소화기내시경		
천안 570-7571					
신경외과	이호근	화 수 금	월 목	뇌출혈/뇌혈관질환, 두부외상, 척추손상, 척추디스크, 척추미세현미경수술	
	정봉섭	수 목	월 화 금	뇌종양 수술, 뇌동맥류 개두술 클립 및 코일 색전술(뇌 미세수술 전문)	
	박재원	월 화 금	수 목	뇌혈관질환, 뇌출혈, 뇌경색, 뇌혈관시술, 두부외상, 안면마비, 두통, 뇌동맥류, 뇌혈관협착	
	김진성	월 목	화 수 금	척추내시경수술(최소침습),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척추외상, 신경성형술, 치단술	
	아산 536-6663 / 6664 / 6662				
신경외과	임장규	월 수 목 토	월 수 목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중재술, 두통, 두부외상, 어지럼증	
	박강혁	화 목 금 토	월 화 목 금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중재술, 두통, 두부외상, 어지럼증	
	김동희	월 화 수 금 토	화 수 금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중재술, 두통, 두부외상, 어지럼증	
	천안 570-7581/ 360-1047				
정형외과	안덕호	화 목	월 수 금	고관절질환, 고관절염, 인공관절치환술, 골다공증, 근골격계외상및하지골절, 퇴행성관절	
	김병설	월 목	화 수 금	인공관절술, 슬관절경술, 골절 및 기타 외상수술, 피판술	
	어일주	월 수 목 금	화	견주관절질환 (회전근개오십견, 테니스엘보), 슬관절질환, 관절경, 인공관절, 근골격계외상	
	정세훈	월 화 수 금	목	슬관절질환, 고관절질환,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 관절경, 골다공증, 근골격계외상	
	아산 536-6647 / 6648 / 6657 / 6765				
정형외과	조성우	월 목 토	화 수 금	척추, 고관절 질환, 골절, 인공 고관절 수술	
	김연준	화 수 금 토	월 목	슬관절, 족부, 족관절, 골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스포츠 손상, 외상	
	문지원	월 수 금 토	화 목 금	인공관절 및 관절내시경 수술, 견주관절 질환, 슬관절 질환, 족부 질환, 외상, 골절, 스포츠 손상	
	고반석	화 목 토	월 수 금	회전근개 질환, 오십견, 외상, 스포츠 손상, 관절경 수술, 고관절 골절, 수부외상, 인공관절	
	아산 536-6675 336-6160				
척추과	하호균	월 목 금 토	화 수 목	척추미세현미경, 내시경수술,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척추골절, 신경치단술, 시술	
	한상현	월~토	월	척추의 퇴행성/변형질환, 목·허리통증, 손발저림, 상하지 마비, 척추 비수술적 치료	
천안 360-1169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정태	월~토	월~금	흉부외상 및 흉강경수술, 성인심장수술, 혈관질환수술, 동맥류조형술, 하이브리드수술, 폐암, 식도암	
천안 360-1082					
일반외과	홍성곤	월~토	월~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치질, 간·담낭·채장, 지방종	
	정원준	월~토	월~금	대장직장암, 대장항문질환, 대장내시경, 탈장, 단일공복강경수술, 담석증, 외상, 화상	
	아산 536-6668 / 6669 / 6281				
일반외과	권순하	월~토	월~금	위·대장·직장암, 담석증, 탈장, 치질, 복강경 수술, 외상, 화상	
	원달연	월~토	월~금	위·대장·직장암, 담석증, 탈장, 치질, 복강경 수술, 외상, 화상	
	조동희	월~토	월~금	복강경수술, 탈장수술, 항문외과수술, 양성종양수술, 대장내시경	
천안 360-1013					
정신건강의학과	이정태	월~금	월 화 목 금	알콜중독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조현병, 우울불안장애, 조울증, 성인정신질환	
	아산 336-6227				
	정문용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기분장애(우울증, 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노인정신(우울, 치매), 수면 장애, 조현병	

외래진료안내 [천안/아산충무병원]

2026.01.05. 기준

진료과	전문의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비뇨의학과	천안 570-7567			
	정호현	월~토	월~금	요로결석, 남성의학, 전립선질환, 음낭 및 음경질환, 요로감염, 방광질환
	아산 536-6677			
	서준규	수 금	월 화	요로결석, 요로감염, 남성의학, 전립선질환, 음낭 및 음경질환, 방광질환
	이춘현	월 화 목	수 목	요로결석, 요로감염, 남성의학, 전립선질환, 음낭 및 음경질환
홍재업	수 금 토	월 화 목	여성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종양내과	천안 360-1161			
	이승세	월~금	월 수	폐암, 소화기암 및 기타 암 (항암치료전문)
안과	아산 336-6199			
	박세민	월~토	월~목	백내장, 녹내장, 각막질환, 망막질환, 택시운송사업 의료적성검사
피부과	아산 336-6223			
	유희준	월 화 금	월 금	아토피, 피부염 및 알레르기질환, 무좀 및 조갑백선
성형외과	천안 570-7685			
	박병일	월~토	월~금	미용성형, 안면외상 및 재건, 종양재건, 흉터성형 및 레이저
	아산 536-6782			
윤근철	월~토	월~금	미용성형, 안면외상 및 재건, 종양재건, 흉터성형 및 레이저	
구강외과(치과)	천안 570-7566			
	이지혜	월~토	월 화 목 금	소아치과, 치주질환, 구강악안면외과, 교정, 임플란트
	김여갑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구강악안면외과, 턱관절외과
	김태균	월~토	월~금	소아치과, 치주질환, 구강악안면외과, 교정, 임플란트
	김은실	월~토	월~금	구강검진
	지현정	월~토	월~금	구강검진
	최수현	월~토	월~금	소아치과, 치주질환, 보철, 임플란트
아산 536-6689				
황주선	월~토	월 화 수 금	구강검진	
진단검사의학과	천안 570-7631			
	안재준	월~토	월~금	감염관리전문기사, 수혈의학, 검사의학
	이태환	월~토	월~금	진단혈액
	아산 536-6522 / 6523			
최종현	월~토	월~금	진단면역, 임상 화학	
윤경아	월~토	월~금	임상미생물, 수혈의학	
이비인후과	아산 536-6778			
	안희영	월 목 금 토	수 목 금	코막힘, 코골이, 축농증, 구강인후두, 음성장애, 난청, 이명, 어지럼증, 두경부종양
	홍남표	화~토	월 화 목 금	중이염, 비과질환, 난청, 어지럼증
마취통증의학과	천안 570-7563			
	김동수	월~토	월~금	
	최수은	월~토	월~금	마취통증의학
	배정호	월~토	월~금	
	예상희	월~토	월~금	
	아산 536-6620 / 6621			
	권영욱	월~토	월~금	
김현수	월~토	월~금		
이중진	월~토	월~금	마취통증의학	
김기선	월~토	월~금		
김동욱	월~토	월~금		
재활의학과	천안 360-1144			
	박찬혁	월~토	월 화 수 금	중추신경재활,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관절통증, 근전도
	아산 536-6650			
전희원	월~금	월 수 목 금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근골계통증, 신경차단시술, 연하장애	
유방갑상선외과	천안 570-7666			
	이형진	월~토	월~금	유방갑상선 질환

진료과	전문의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영상의학과	천안 570-7543			
	이도연	월~금	월~금	영상진단 및 판독, 전신혈관 및 비혈관중재술
	정구성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중재적 시술, 영상진단 및 판독
	하일현	월~금	월~금	비수술적 혈관질환 치료, 비수술적 종양치료, 영상진단 (종양질환, 혈관질환 전문)
	유선진	월~금	월~금	영상진단 및 판독
	김태건	월~금	월~금	영상진단 및 판독
	박상민	월~금	월~금	영상진단 및 판독
	아산 536-6654			
	오배근	월~토	월 화 수 금	영상진단 판독, 인터벤션, 초음파
	김형천	월~토	월 화 목 금	영상진단 판독, 초음파, 비침습적 중재술(영상유도, 종양치료 및 혈관치료)
조황희	월~토	월 수 목 금	의료영상(CT, MRI, X-ray) 진단 및 판독, 의료 영상 품질관리, 초음파 검사, 초음파 유도하 조직 검사	
도윤아	월~토	월 화 목 금	근골격/척추	
김재근	월~토	월 화 수 금	복부영상진단, 초음파	
산부인과	천안 360-1012			
	김승국	월~토	월~목	불임, 갱년기, 부인질환, 복강경 수술
	이서영	월~토	월~금	산부인과 검진 전문
아산 536-6688				
김수곤	월~토	월 화 목 금	자궁경수술, 복강경수술, 단일공 복강경수술, 자궁근종 및 난소 종양	
병리과	천안 360-1026			
	김규호	월~토	월~금	조직 및 동결결절
최창환	월~토	월~금	조직 및 동결결절	
직업환경의학과	천안 570-7635, 7585			
	김영준	월~토	월~금	건강증진, 직업환경의학, 예방의학
	이철현	월~토	월~금	예방의학, 사업장 보건관리
	김교현	월~토	월~금	감염관리전문기사, 예방의학, 사업장 보건관리
	안세진	월~토	월~금	근로자특수건강검진, 직업병,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이현교	월~토	월~금	특수건강진단 및 판정, 업무적합성 평가, 산업보건지문,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응급의료센터	천안 570-7519, 7520 / 360-1119			
	김재우			
	강승윤			
	최일국			
	이상현	24시간 응급 진료		응급의료체계, 중환자응급, 외상응급, 중독학, 소아응급, 소생학, 내외과계응급, 산부인과응급
	조현영			
	안승배			
	김경호			
	아산 536-6519 / 6619 / 6719 / 6747			
	신태용			
	김우진			
윤철수				
유경환				
한병곤	24시간 응급진료		응급의료체계, 중환자응급, 외상응급, 중독학, 소아응급, 소생학, 내외과계응급, 산부인과응급	
이세규				
박상현				
정동길				
전치현				

진료시간은 병원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8:30~오후 5:30(점심시간 : 오후 12:30~오후 1:30) / 토요일 오전 8:30~오후 12:30